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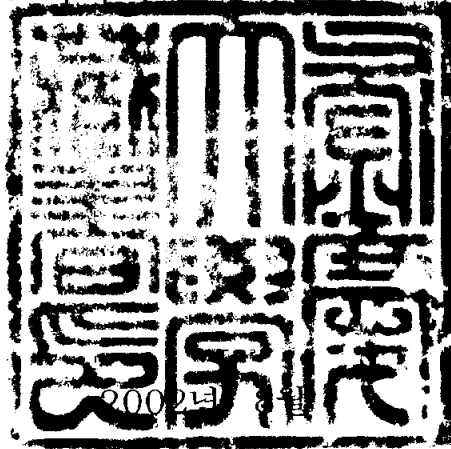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작품의 주제 연구

- 가치관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송 명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장 순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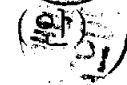
장순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8월 일

주 심 문학박사 조 동 구

위 원 문학박사 고 순 희

위 원 문학박사 송 명 희



< 차 례 >

<영문초록>	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의 범위	7
 II. 소설교육에서 주제와 가치관	11
1. 소설교육의 의의	11
2. 소설교육에서 주제의 의의	16
3. 소설교육에서 주제와 가치관	24
 III. 소설 주제의 가치지향	33
1. 소설의 주제	34
1.1. 내적 가치지향의 주제	34
1.2. 외적 가치지향의 주제	51
2. 가치관의 유형별로 살펴 본 주제의 가치지향	70
2.1. 로키치의 분류	70
2.2. 정범모의 분류	71
2.3. 클라크혼의 분류	77

IV. 가치지향의 한계 및 제언	80
1. 관념의 체계와 행동의 체계의 유리	80
2. 다양한 인간 모습 제시 미흡	85
3. 미래의 가치에 대한 관심 부족	87
VI. 결론	91
<참고문헌>	94

< 표 차 례 >

<표 1> 교과서 소설 작품의 목록 ①	8
<표 2> 교과서 소설 작품의 목록 ②	9
<표 3> 클라크혼의 가치지향성의 범주	31
<표 4> 정범모의 가치지향성의 범주	32
<표 5> 교과서 소설 작품의 주제 목록	69
<표 6> 로키치(Rokeach)의 분류에 따른 가치지향	71
<표 7> 정범모의 분류에 따른 가치지향	72
<표 8> 클라크혼(Kluckhohn)의 분류에 따른 가치지향	77
<표 9> 주제의 인간적 가치의 구분	82
<표 10> 트리스트(Trist)의 미래 사회의 지향 가치	88

<영문초록>

A STUDY ON THE THEME OF A NOVEL OF THE TEXTBOOK FOR JUNIOR HIGH SCHOOL -FOCUS ON VALUE IN THE THEME-

Korean Education Soon Mi Jang

Directed by Proffessor Myung Hee Song

We learn that literature is not only beautiful and touching thing but also an organized matter. But, It can't be a matter of interest to almost learners after somewhat time when the authority of evaluation wields. Rather than that, we find something fresh which is especially touched and interested in the literature. This effect is caused by a motif which remains in learners' memory with literary works.

As be the important suggestion in literary education, a motif in a literary work is presented and internalized to learners as value. The literature is an act of value-inclined toward the human and world. Value means something meaningful that people incline universally. The literature appears a character of value-inclined strongly, Though it is regarded as a low grade of art, Because, a intermediary of literature is words which can't have nothing concerned with value essentially, and besides there are a certain view of the world and a certain human type like a philosophy, ideology, historical background of literary work and social background of literary work. Especially, a fiction shows complex life of man concretely, therefore learners considered value in a fiction as significant.

I examined fictional motif in Korean text of middle school first grade and value of these motif on the assumption I mentioned above. As a result, fiction deals with the value which can summarized as a human value. That is to say, It deals with value which can be dwelled in body and mind of man. Above all, It is desirable gathering of literary works dealt industrializations, wars, and the partition which have a influence on our spirit, because learners can face up to reality.

And, I examined values of fiction in text according to Pum-mo Joeng's classification and Kluckhohn's classification which show complex aspect of

human being as a significance of fiction education. In result, subjectivity is superior in a view of human being, value of present-inclined is superior in a view of time, and cultivating one's mind is superior in a view of life. Particularly, universalism, achievementism, individualism which are regard as values of modern are not sublated. Namely, It shows that specificism is being superior, and also achievementism is to be importance.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se value inclination. First, they deal with human value, however they just present values ideally. For example, there isn't a literary work about self-realization which is concerned about ultimate value. That is, fiction in text attach importance to system of ideal which is demanded to acquire by learners, but they are not interested in system of real act. Second, value of subject in fiction can't show complex figure of human being deeply which give life to significance of the novel education. Finally, the education is a preparation, but there isn't a work about future which will be face. We must think these problems in novel education seriousl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학을 접하게 되는 것은 교과서에서이다.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문학 작품에도 체계가 있고 또 그 체계에 따라 감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습자는 교과서의 작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과서 밖에서 접하는 작품에서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읽어 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문학 교육 전반이 그러하니 문학 교육의 하위 분야인 소설 교육에서 또한 그러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과서의 문학 작품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얻게 되는 것일까? 이 점을 생각하는데 있어 소설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소설 교육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당연하다. 즉, 소설이 인간의 복합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므로 성장기의 학습자에게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게 하고,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체계보다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개성적인 인물이나 혹은 특이한 소재,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순간의 감정 등을 배우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문학 작품의 한 요소에 불과한 그런 것들은 대체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묻혀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난이대」의 부자의 비극적이긴 하나 절망적이지는 않은, 게다가 평범하지만은 않은 경험이 다른 작품과 달리 참신하게 다가오고 또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는 이유는, 전쟁이 평범한 인간에게 가져다 준 예상하지 못

한 경험을 의연히 극복하려는 두 부자의 의지¹⁾라는 주제가 작품 자체의 경험과 기억의 이면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문학 작품의 내면화에는 주제가 큰 비중을 가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로버트 C. 메레디쓰와 존 D. 횃제럴드는 문학작품을 해석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국어교사, 문학전공교수, 비평가들은 거의 제일 먼저 그 작품의 주제를 알아 보려한다²⁾고 말했는데, 이것은 작품의 전체적 이해나 기억에 주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이다.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는 작가의 의도를 말한다.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목표를 살펴보면, ‘문학 활동을 통해 얻는 효과는 인식적, 정의적, 심미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놓이는 것이 주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제는 계몽적이거나 교훈적인 내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주는 지·정·의 측면에서의 제반 의도와 효과를 아울러 가리키는’ 것이다.³⁾ 그리고 주제는 보편성을 지닌 세계 문학과 특수성을 지닌 우리 문학과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도 적절하게 활용⁴⁾할 수 있고, 기존에 단절되어 학습되었던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연결하는 제재로 활용⁵⁾할 수도 있다.

문학은 가치의 산물이고 그 가치는 주제로 집약된다. 소설은 문학의 하위 장르이니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주제의 내면화가 문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은 문학 작품의 가치가 내면화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내면화는 그 특성상 관찰할 수가 없으나 작품의 주제에 내포되어 있는, 내면화되기를 바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고찰이 가능하다. 즉, 소

1) 하근찬의 「수난이대」의 주제를 교사용 지도서에서 ‘수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보고 있다. 교육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272면.

2) 조남현, 앞의 책, 170면.

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310면.

4) 교육부, 위의 책, 68면.

5)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124면.

설 작품의 주제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혹은 그것들이 어느 한 가지 가치에 편중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소설 교육의 의의에 비추어 삶의 복합적인 이해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교과서에 실리는 문학 작품은 정규 교육은 받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꼭 경험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기에 그 주제에 담긴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중등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단순히 주제를 찾아내고 그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⁶⁾ 이경희와 임정중은 주제 분석을 통하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동화의 기능이 인간 형성이라는 전제 하에 순수문학적인 면과 교훈적인 면을 고루 지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손유진은 주제 분석을 통한 유형 정리와 교육 과정

6) 이경희, 「동화의 주제 분석적 연구-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동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논지』, 대구교대, 1987.

손유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문학작품의 주제유형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91.

김정혜, 「초등학교 문학 교재의 주제 연구」, 숙명여대 석사, 1993.

심상영,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 이야기 단원의 주제 및 등장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1996.

최문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동화 교재의 주제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97.

이재훈, 「주제 분석을 통한 동화 교재의 연구-제 4,5,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주교대 석사, 2000.

임정중, 「초등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동화의 주제 변천 연구-중, 고학년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교대 석사, 2000.

시기별로 강조되어 온 주제와 그 특징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의 문학 작품들은 보편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중요시되어 온 가치들을 주제로 선정하고 있으나, 아동들을 위한 문학 작품에서는 이러한 것들과 함께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주제, 국제화 시대에 앞서 갈 수 있도록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주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주제 등 발전적인 주제의 선정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최문수, 이재훈도 교육과정 시기별로 나누어 주제를 고찰하고 있다. 김정해는 문학 작품을 운문·산문으로 나누어 주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상영은 주제와 더불어 등장물도 분석하여, 주제 면에서는 지나치게 교훈적인 측면의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장물은 성인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남녀의 수적 차이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연령적인 면과 성비의 균형이 요구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보다 다양한 종류의 직업, 동식물, 자연물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주제를 필자 나름대로 분석하고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주제와 비교하는 것이다.⁷⁾ 김순병은 로버트 스탠턴이 제시한 작품 해석의 이론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현행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 작품을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실 요소들(플롯)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작가가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특수하게 사용한 문학적 장치가 무엇인가를 관찰하여 주제를 해석하고 교사용지도서에 제시하고 있는 주제와 비교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주제의 지도에 관한 것으로, 주제를 탐색하는 방법과 주제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⁸⁾ 박유정은 틀에 박힌 한 가지 주

7) 김순병, 「고등학교 문학 교재 소설 단원의 플롯과 주제의 해석」, 부산대 석사, 1991.

8) 박유정, 「소설 주제 지도 연구-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고전 소설을 중심으로」, 경상대 석사, 1993.

이강엽, 「소설 교육에서의 주제 탐색 방법 시론-양반전을 실례로」, 『국어교육』87·88, 1995.

제만을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기존 소설 주제 지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주제를 올바르게 지도함으로써 참다운 소설 교육의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고전 소설이 특히 권선징악이라는 일원적인 주제만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교과서에 실린 고전 소설 「심청전」, 「토끼전」, 「홍길동전」을 분석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강엽은 주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작품 외적 요소들을 배제한 작품 분석을 통한 주제 탐색이 바람직한 방법임을 전제하고, 「양반전」을 대상으로 각 등장인물의 입장에서의 조망과 등장인물간의 대결 양상, 전체 구성 등으로 주제를 알아보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주제가 포함하고 있는 가치의 내면화와 관계된 것으로, 주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을 살피는 것과 주제의 내면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⁹⁾ 강남희는 교육의 전 과정이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음을 살피고 문학 교육도 간접적인 가치관 교육을 한다는 전제 아래 제 6차 교과서의 소설 작품 11편을 분석하여 교과서의 소설은 정신, 개인, 자연, 미래 지향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경수는 문학 교육에서 가치관이 중요하다면, 소설 양식은 문학의 어느 다른 양식보다도 가치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양식임을 전제하고, 소설에서 가치관의 문제는 주제의 내용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주제는 작품의 여러 구성 요소인 사건·인물·배경·시점 등에 통합되어 작품 자체의 구조화에 깊은 관련을 맺고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소설 작품의 주제를 실제로 분석하는 경우 작품의 배경과의 관련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와 그 실재감과의 관련에서, 상징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하는 소설

9) 강남희, 「국어교과서 소설작품의 주제와 가치관 연구-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1998.

박경수, 「소설의 주제 분석에 따른 가치관 교육의 문제」, 『정신문화연구』34, 1988.

최용선, 「문학 작품 수용에서 주제 내면화 방법 연구-읽기 교과서 동화를 중심으로」, 인천교대 석사, 2000.

에서는 사실의 문학적 허구화를 가능케 하는 역사적 상상력과 이를 서술하는 시점을 분석함으로써 주제의 형성과 그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다. 그리고 신·구 가치관의 전환기에 나타난 고전 소설의 경우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의 공존 현상과 이의 상반성을 파악하는 가운데 이면적 주제에 대한 참다운 가치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한다. 최용선은 문학 교육에서 내면화 단계가 학습자의 몫으로 주어지고 구체적인 통로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주제의 내면화 단계를 가시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유도를 위한 모형을 구안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수용이론의 독자 중심의 관점, 반응중심 이론의 구체적 교수 방식, 상상력이론의 이성과 정서의 두 요인들이 함께 관련한 독특한 구성 능력, 심리학 관점의 작품 수용을 통한 심리적 성숙 등의 이론적 근거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제 내면화에 관여하는 요소인 상호 연관 텍스트, 동료 집단, 교사 등이 토의학습을 통한 반응의 공유로 내면화의 확장과 관련 텍스트의 관계망에 의한 내면화 심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동기 유발→주제형성→주제확장→주제심화’ 단계를 설정하고 직접 수업에 적용한 결과 교육 과정이라는 제도 상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단기간의 적용으로 내면화 검증을 가시화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유형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먼저, 초등교육에서는 주제 유형 분류에서부터 등장물과 주제의 관계, 각 교육과정 시기별 주제 변화 과정과 주제의 내면화 방법에 이르기까지 연구가 다양한데 중등 교육에서는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그리고 초등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작품의 절반이 주제가 교훈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제시되는 주제가 21가지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 중등교육에서는 그다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¹¹⁾ 중등교

10) 2001년 12월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주제’라는 검색어로 주제와 관련된 논문과 연관물을 검색한 결과, 소설의 주제와 관련된 초등교육 교과서 연구는 10편, 중등교육 교과서 연구는 5편으로 초등교육 연구가 중등교육 연구의 2배에 이른다.

육에서 비로소 본격 문학을 다룬다고 하지만, 연계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한적으로 제시되는 주제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또, 중등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작품의 주제들에 대한 가치관 분석은 있었으나 그것이 중등 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가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문학 작품의 주제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가 내면화되는 것을 문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교과서 수록 소설 작품의 주제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범위

II장에서는 ‘소설 교육의 의의’, ‘소설 교육에서 주제의 의의’, ‘소설 교육에서 주제와 가치관’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소설 교육에서 주제와 가치관’의 절에서는 먼저 소설 교육에서 가치관은 문제 삼는 이유와 가치관의 문제를 주제와 결부시켜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치관의 기능, 특성, 유형과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 볼 것이다.

-
- 11) 최시한은 제 6차 교육 과정의 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소설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교육에는 ‘정서를 순화’하고 ‘국가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이 좋다는 관념에 얽매어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자연’, ‘순박한 민족성’, ‘민족의 순결성’의 주제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 최시한,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소설 단원 검토』,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태학사, 2000, 183-184면.

소설 작품에서 주제로 종합될 수 있는 가치관의 의의는 그것이 문화의 구성 요소이며 문화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내면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가치관은 지(知)를 모두 거친 최후의 판단으로 교육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이다.

Ⅲ장에서는 대상 작품의 주제를 살펴보고 주제에 내포된 가치관은 Ⅱ장에서 고찰한 가치관의 유형별로 검토하여 본고의 관심 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제 7차 교육 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2학기에 수록된 소설 작품이다. 대단원의 소단원으로 제시되어 있는 소설 작품과 보충·심화에 소개되어 있는 작품으로¹²⁾ 현대소설, 고전소설, 외국소설과 동화를 포함하여 총 13편이 대상이 된다.

학기	단원/단원명	제 목	지은이	갈래	원출처	발표년도	참고
1	1. 문학의 즐거움	이해의 선물	빌라드	단편			외국 소설
		강아지 똥	권정생	단편	『기독교교육』	1969	보충·심화 동화
	5. 삶과 갈등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	장편 대중	『소설 동의보감』 (창작과 비평사)	1990	
		바람을 파는 소년	이준연	단편	『새교실』	1972	보충·심화 동화
		병어리 삼룡이	나도향	단편	『여명』	1925	보충·심화
	7. 문학과 사회	홍길동전	허균	장편	경판본	조선 광해군 (17C초)	고전소설
		옥상의 민들레꽃	박완서	단편	『실천문학』	1980	동화

<표 1> 교과서 소설 작품의 목록 ①

12) 제 7차 개정 국어 교과서의 한 단원은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읽기 전에, 소단원 내용), 학습활동, 생각 넓히기, 보충·심화, 한자 공부, 이 단원을 마치며’로 이루어져 있다.

2	2. 문학의 아름다움	소나기	황순원	단편	『신문학』	1953	
		요람기	오영수	단편	『현대문학』	1967	보충·심화
	6. 문학과 독자	흰 종이 수염	하근찬	단편	『사상계』	1959	
		숨쉬는 영정	구인환	단편	청한	1989	
		우산장수 할아버지	김철수	단편		1993	보충·심화 동화
		나비	헤르만 헤세	단편		1911	외국소설

<표 2> 교과서 소설 작품의 목록 ②

1학기의 「강아지 똥」, 「바람을 파는 소년」, 「옥상의 민들레꽃」¹³⁾과 2학기의 「우산장수 할아버지」가 개정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동화다. 본고에서는 동화도 다루려고 한다. 전체 작품 13편 중 동화는 4편으로 비중이 큰 편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서사 장르와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¹⁴⁾를 접했던 학생들이 단숨에 본격문학으로 관심의 대상을 옮기는데 따를 수 있는 파분함이나 문학에 대한 어려움 등이 감소한다는 면에서도 동화의 수록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래서 소설 작품 다루면서 동화를 포함하여 다루기로 하겠다. 그 근거로, 박춘식은 아동문학이란 작가가 아동이나 동심을 가진 성인에게 읽힐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특수한 문학으로써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한 일반 문학과 구별

13) 이 작품은 『속삭임』이라는 제목의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부제가 붙은 단행본으로 나왔다. 박완서, 『속삭임』, 샘터, 1997.

14) 임정중에 따르면 제 6차 교육 과정의 읽기 교과서의 동화(소설) 작품의 주제는 20가지이다. ‘자연 사랑’, ‘환경 오염’, ‘동물 사랑’, ‘따뜻한 마음’, ‘우정’, ‘효성’, ‘가족 사랑’, ‘자기 인식’, ‘근면, 성실’, ‘파욕은 손해’, ‘희생 정신’, ‘개척 정신’, ‘용기’, ‘지혜와 슬기’, ‘나라 사랑’, ‘평화 통일’, ‘전통문화의 보존’, ‘선행과 보은’, ‘정의’, ‘정직(청렴)’이 그것이다. 임정중, 앞의 글.

하려는 편의적 명칭에 불과하다고 한다.¹⁵⁾ 그래서 아동문학은 문학의 커다란 범주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폴 헤르나디의 4분법적 방법을 원용하여 서사 양식에 동화와 아동 소설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또 석용원도 3분법을 들어 서사 형식에 동화와 아동 소설이 들어간다고 하였다.¹⁶⁾ 동화와 함께 서사 형식의 한 갈래인 아동 소설은 동화와 구분에서 모호한 점이 많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초등학교 수준에서 제시되는 소설의 경우 동화 형식을 빌린 소설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소설과 동화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와 중학교 1학년이라는 학습자의 특성과 또 동화를 다룸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로움을 근거로 동화도 다루려 한다.

소설의 주제를 살펴볼 때는 학습자에게 높은 확률로 전달될 것이라 가정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주로 참고할 것이다.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주제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에서 중시하고 있는 학습 활동과 교사용 지도서의 해설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수록 소설의 가치지향을 분석, 한계를 고찰할 것이다. 특히, 소설 교육의 의의에 비추어 가치지향이 보이는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15) 박춘식,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제』, 일지사, 1987, 29면, 최문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동화 교재의 주제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97, 8면에서 재인용.

16) 강문희, 이혜상, 『아동문학교육』, 학지사, 2001, 18-19면.

II. 소설교육에서 주제와 가치관

1. 소설교육의 의의

문학은 유기체로 비유된다. 공시적으로는 그것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고 통시적으로는 큰 장르에 속하는 작은 장르들이 생겨나서 변하다가 사라지고 하는 양상이 끊임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소설은 아직도 형성 중의 단계에 있다.¹⁷⁾ 수세기 동안 향유되었던 신화나 전설이나 고소설을 지금은 감상할 수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시대의 서사적 원리가 다음 시대에 와서 본격적 문학을 이루지 못하는 사실은 서사문학의 내용과 형식이 정체되지 않고 변화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서사문학이 당대의 사회적 상태 및 역사적 단계와 불가분의 연관을 지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서사적 원리는 당대의 인간의 삶을 반영하며, 좀더 근원적으로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소설이란 과거의 위대한 서사시 형식의 후예로 간주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로서의 소설은 비교적 최근의 장르로서 그것을 생겨나게 한 전통과는 대단히 느슨한 관계¹⁸⁾가 있을 뿐이다. 그 소설이 최근에 들어서는 총체적 위기에 있다는 견해¹⁹⁾마저 허다하다. 반면에 이와

17) 조정래,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2, 26면.

18) 마르트로베르, 김치수·이윤옥 옮김,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9면.

19) 대표적으로 김성곤은 제임스 프레드릭의 말을 인용하여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상반되는 견해도 있다. 바흐첸²⁰⁾은 소설과 더불어 그리고 소설 안에서 모든 문학의 미래가 탄생한다고까지 예언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소설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앞서 말한 바 있지만, 신화에서 근대소설까지 서사문학의 변천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삶의 양상과 인식구조의 변화²¹⁾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통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설은 여전히 변화, 형성되고 있는 장르라 할 수 있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소설의 특징을 규정짓는 것은 소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라 할 수 있는 장르라는 것이다. 소설의 기본적 서술 양식은 작자가 제 삼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독자에게 표현해 가는 것이다. 소설이 형성된 이야기를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독자가 읽게 된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소설의 특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소설문학의 원형으로 보고있는 김채수²²⁾는 8~9세기 경 이슬람 문화의 이베리아반도로의 전파는 로망스²³⁾라고 하는 소설장르를 산출시켰고 동아시아로의 전파는 전기(傳奇) 소설²⁴⁾을 산출시켰으며, 중국으로부

진열되어 있는 시대에 가장 민감한 장르는 아무래도 내러티브를 생명력으로 하는 소설문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소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줄거리를 만든 다음, 그것을 내러티브라는 형식을 통해 이야기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소설에서 요구되는 상상력, 구조, 언어, 스토리텔링 수법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성곤, 『뉴미디어시대의 문학』, 민음사, 1996, 22-23면.

20) 월프레드 L. 개린 외, 최재석 옮김,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2000, 401면.

21) 신화에서부터 근대소설로의 이행과정은 신에서 영웅, 그리고 일반적인 현실적 삶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의 신분 하강을 보이는데, 이것은 역사적 변화와 동일한 양상이다. 또한 이것은 서사문학이 인간의 삶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을 의미한다. 조정래, 나병철, 앞의 책, 14면.

22) 김채수 편, 『소설의 주제 도출법』, 박이정, 1997, 39면.

23) 로망스(Romance)는 인생을 제시하되,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모험이 충만하고 영웅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인생을 제시하는 장르다. M. H. 아브람스,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4, 36, 136, 238면.

24) 전기(傳奇)란, ‘기이한 것을 전한다’는 뜻이며, 그 내용은 신괴(神怪)류에 속하는 것, 염정(艷情)류에 속하는 것, 풍자류에 속하는 것, 호협(豪俠)류에 속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소설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근대적 의미의 소설의 체제를 갖추면서 발전해 갔다. 이수웅, 『중국 문학 개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터 일본에로의 전기 소설의 전래는 모노가타리(物語) 소설²⁵⁾을 성립시켰다 한다. 십자군 전쟁 이후의 14~15세기경에는 이베리아반도에서 피카레스크소설을, 이탈리아반도에서 노블을, 동아시아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에는 회장(回章)장편소설²⁶⁾을, 일본에서는 오토기조시²⁷⁾를 산출시켰으며,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근대소설은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을 계기로 해서 근세에 성립해 나온 바로 이러한 소설장르들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어 나왔다는 견해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와 같은 근세소설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소설문학장르는 서민층, 그 중에서도 상인(商人)층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출현한 문학장르가 소설이라는 것이다. 하층의 인간들과 상층의 인간들이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게 된 사회적 환경이 성립되어 나온 시점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알리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김채수의 의견에서 주목할 것은 소설의 가장 기본적 특성에 대한 것으로, 소설이 독자에게 전하려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을 전달하는

404-405면.

- 25) 物語文學. 중고시대에 이르러 음절문자인 가나의 발명에 의해서 일본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 10세기 중엽 경부터 급격하게 이야기체 문학이 발달했다. 物語란 동사 ‘이야기하다’의 연용형이 명사화된 것으로서, 이야기되어진 것을 골자로 하여, 그것을 문자로 정착시킨 것이 그 시초이지만, 나중에는 문자적 표현이 선행하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들려주는 것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麻生磯次 외, 이영구 역, 『일본 문학 개론』, 교학연구사, 1981, 13면.
- 26) 장회(章回)소설. 명나라 대에 발전한 장르로 형식의 중요한 특징은 회수를 나누고, 제목을 명시하며, 단락이 가지런하다는 것이다. 본디 이 소설들은 장기간 민간에 전해져 왔던 것이며, 설화인 등을 거치면서 내용이 보완되었고, 마지막으로 작가들의 손에 의해 오늘날에 볼 수 있는 소설로 개작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水滸傳』, 『三國志演義』, 『西遊記』, 『金瓶梅』, 『儒林外史』, 『紅樓夢』 등이 있다. 이수웅, 앞의 책, 425-426면.
- 27) 御伽草子. 이야기체 문학이 쇠퇴한 후 이어 나타난 것이다. 御伽란 원래는 상급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벗이 된다는 정도의 뜻으로서 무료를 풀기 위해서 말상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오토기조시는 그림이 들어 있는 책자인 경우가 많다. 오토기조시는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면은 있으나 문학 작품으로서는 치졸하였지만 근세 소설에의 가교 구실을 해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麻生磯次 외, 앞의 책, 14-15면.

소설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소설의 기본적 서술양식은 작자가 제 삼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독자에게 표현해 가는 수법이고, 소설은 형성된 이야기를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독자가 읽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소설의 어떤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까? 마르트로베르²⁸⁾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규칙과 금지로 만들어지는 것을 격식으로 삼고 있는 전통적인 장르와는 달리, 소설은 규칙도 없고 구속물도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한계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소설의 계속적인 전파의 주된 이유이고 현대 사회의 소설 유행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또 소설은 적어도 소설의 창의적인 정신에 의해서, 활동적인 기질에 의해서, 그 생명력에 의해서 현대 사회와 유사한 것이라 한다. 소설이 모든 다른 문학 장르와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현대 사회와의 유사성 때문도 아니고 현실을 재현하는 능력 때문도 아니며 단지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들을 재창조하기 위해 삶의 요소들을 재분배하기 위하여 삶을 자세히 검토하는 능력 때문이라는 것²⁹⁾이다.

이것은 소설교육의 목적의 하나를 탐구로 보는 김상욱³⁰⁾의 견해와 유사하다. 김상욱은 소설이 서사 장르 일반이 지닌 보편성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른 특정 시기의 서사적 대응이란 점에서 역사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하면서 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긴장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언어적 활동을 소설의 특성으로 들면서, 소설이 언어적 활동이 지닌 일반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곧 특정한 전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소설의 지향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편성과 특수성의 맥락으로 전달되는 특정한 전

28) 마르트로베르, 앞의 책, 13-14면.

29) 마르트로베르, 위의 책, 35면.

30) 김상욱은 한 편의 소설을 읽는 일은, 특히, 교육이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설교육은 일상적 의미의 기호를 새로운 전체 작품의 단일한 기호 속에 배치함으로써 새롭게 덧붙여진 의미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며,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곧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문학 능력의 신장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상욱,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84면.

언의 탐구가 소설을 교육하는 목적인 것이다. 또한 전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전달의 방식 또한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³¹⁾

더불어 김상옥은 독자가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줄거리를 예측하고 인물을 평가하며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가로놓인 공백을 추론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대 지평과의 일정한 조응 속에서 자신의 서사를 재구성하는 대화적 읽기를 통해 소설텍스트에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비판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반성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정립되어 가는데, 이 주체 형성을 소설 교육의 목적의 하나로 들고 있다.³²⁾ 이것은 루카치가 소설의 내적 형식이 문제적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며, 명백한 자기인식으로 나아가는 여행의 과정³³⁾이라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소설은 그 창의적인 정신과 활동적인 기질과 생명력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의 삶을 탐구하며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참된 인간으로 성숙하는 넓은 의미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바흐전의 생각과 뿌리가 같은 것으로, 바흐전은 자신의 소설에 관한 해명의 틀로 대화로서의 소설성³⁴⁾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는 그 소설성의 한 준거로 교육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곧, 인간의 의식적 발전 과정이 개별자로서의 아동의 제반 측면에서의 성장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 설명 모델로서 바흐전은 베아제의 이론³⁵⁾ 및 상호텍스트성³⁶⁾으로서의 언어 습득이라는

31) 김상옥, 위의 책, 83면.

32) 김상옥, 위의 책, 298-323면.

33) G. Lukacs, *The Theory of the Novel*, M. I. T press, 1971, p.80, 문학과 문학 교육 연구소 편, 『문학교육의 탐구』, 국학자료원, 1996, 254면에서 재인용.

34) 바흐전은 소설에 접근하는데 있어 언어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모든 언어는 '대화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발화자와 수화자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는 말해줄 수 없다 한다. 그러니까 소설도 발화자와 수신자간의 대화로 전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작가는 작가의 목소리가 많은 목소리 중의 하나에 불과한, 작중인물들이 자유로이 말하도록 허용되는 '다성'적인 작가라 하며 다성을 소설의 특질로 확인한다. 윌프레드 I. 게런 외, 앞의 책, 397-398면.

35) 베아제는 인간이 환경의 요구에 따라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를 끊임없이

개념을 들고 있다.³⁷⁾

이렇게 소설이 인간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교과서에 실리는 많은 문학 장르 중에서 왜 소설을 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또한 본고에서 다룬 작품은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 학습자가 접하는 소설이 문학적 측면에서는 소설 혹은 문학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데, 교육적 측면에서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 검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소설교육에서 주제의 의의

소설에서 주제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제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제와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인 제재, 소재, 제목, 사상, 내용, 모티프 등과의 비교를 통해 주

재구성해 간다고 한다. 인간은 처음 태어나서는 타고난 반사적인 도식(scheme)을 가지게 되고 자라면서는 정신적인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 도식은 조직(system)과 적응(adaption)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데, 조직은 유기체가 일관성 있는 체계를 형성하도록 통합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적응은 동화와 조절의 통합적인 기능으로, 동화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 또는 인지 구조 속에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인지과정이고 조절은 자신이 가진 기존의 도식이나 구조가 새로운 대상을 동화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때, 그 새로운 대상에 맞도록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이나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신명희 외, 『교육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2001, 45-46면.

36)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는 1966년 소련의 문학이론가인 바흐친에 관한 논문에서 크리스테바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이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는 문학적 담론은 어떤 한 작가의 독창성이나 특수성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별적인 텍스트들 및 일반적인 문학적 규약과 관습들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크리스테바는 이 용어를 '모든 텍스트는 인용구들의 모자이크로 구축되며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정의한다.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225면.

37) 문학과 문학교육 연구소 편, 『문학교육의 탐구』, 국학자료원, 1996, 255-256면.

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견해는 상당수에 이른다.³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고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여기서는 주제의 개념을 일반적인 관점을 따르기로 한다.

우리의 문학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신비평에서는, 주제란 한 편의 소설이 쌓아 가는 것이고 그것은 관념이며 인상이고 사건과 인물에 대한 해석이며 서사물 전체에 구체화되어 있는 인생에 관한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관점³⁹⁾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러시아의 비평가 토마셰프스키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그는 「테마론」⁴⁰⁾에서 주제를 서사의 부분적 국면이나 개별적 요소로 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주제를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 있는 관념으로도 보지 않으며, 인생관이나 세계관도 아니고 단순히 작의라고 부르기에 도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주제를 구조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주제란 이야기를 구조화시켜주는 원리, 혹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개별적 성분들을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통합의 원리⁴¹⁾로 보고 있다. 즉, 완결된 문학 작품의 구조라는 것은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적 자질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상호작용과 배치관계에 있어서도 분리되거나 변조될 수 없는 통일체라는 것이다. 하나의 문학 작품이 완결성을 얻고 구조에 이르려면 부분들을 불가분의 관계로 통합시켜주는 원리는 필수적이고, 이 원리는 담론의 전 국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문학 작품에서 주제는 작품 자체의 미적 완결성을 결정짓는 것이고 그 주제의 파악이 문학 작품의 완전한 이해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토마셰프스키의 견해는 어느 작품에서나 그렇듯이 주제가 작품에는

38) 대표적으로 조남현은 『소설원론』에서 외국의 여러 학자의 견해를 들어 주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주제와 제재, 소재, 모티프 등과의 비교를 통해 주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39) 한용환, 「주제론」, 『동국어문학』 6, 1994. 37면.

40) 로만 야콥슨 외, 조주관 역, 『러시아 현대 비평이론』, 민음사, 1993. 참조.

41) 한용환, 위의 글, 34-35면.

통일성을 사건에는 의미를 부여해 준다⁴²⁾는 견해와 맥이 닿는다. 주제가 작품의 제작 원리와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소설의 주제에 대한 인식은 소설의 구조와 유리된 상태에서보다 구조 안으로 흡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것은 소설을 허구의 성격으로 인정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왜냐하면, 소설은 현실의 허구적 반영으로 그것의 주제 또한 작품의 외적 관념적 범주에서 작품의 구조적 측면으로 끌어온 때문이고 작가의 창작적 동기와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⁴³⁾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알베르토 모라비아⁴⁴⁾는 소설에서 주제, 즉 관념(주제)을 다루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표현하려는 이념이나 관념이 어떤 경로를 밟아야 하며 또 소설 속에서 그 관념을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설 속에서의 이념이나 관념은 시적 감수성의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스타인톤도 소설에서의 주제는 일정한 스토리를 경과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추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소설의 주제는 모든 구성요소를 통해 암시되어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일정한 주제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⁴⁵⁾고 했다.

정리하면, 주제는 구조 즉 작품 전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고, 주제는 생경한 사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작품을 꾸미는 원리

42) 박덕은 편, 『현대소설의 이론』, 박영사, 1988, 33면.

43) 이봉채, 『소설구조론』, 새문사, 1984, 258면.

44) 이봉채, 위의 책, 173-174면.

45) 스타인톤은 소설 속의 주제를 제시, 추출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① 주제는 스토리 속에 있는 모든 뚜렷한 디테일에 대해 적합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제 분석의 결과는 스토리의 어떤 디테일과도 모순되어서는 곤란하다. ③ 스토리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거나 암시되지 않은 그런 증거에 근거를 두고 주제 분석을 피해서는 안 된다. ④ 결국 주제 분석은 스토리에 의해 직접 암시되어야 한다. Robert Stanton, *An introduction to fiction*, pp.22-23, 이봉채, 위의 책, 172면에서 재인용.

인 것이다.⁴⁶⁾ 그러므로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은 소설 전체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작품의 측면에서 주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면, 작가와 독자에게 주제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자. 작가에게 있어 주제는 창작 활동을 이끌어 가는 정신적 집약점이고, 작가가 취한 제재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을 조리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통일원리를 가리킨다. 또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제는 독자가 작품을 읽고 난 후에 작품으로부터 느끼는 감동이나 흥미, 또는 관심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주제는 독자가 독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작가의 창작 의도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주제는 작가의 문제이며 동시에 독자의 문제⁴⁷⁾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주제가 없거나 주제가 별로 중요한 구실을 하지 않는 소설의 현상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관념의 제시보다는 경험의 공유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소설 작품에 대해서는 위의 견해가 송두리째 부정될지도 모른다. 더욱이 소설 독자의 편에서 살펴계 되면 주제의 문제가 가지는 비본질적인 양상은 뚜렷해 진다고까지 할 수 있겠는데, 독자는 소설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고, 또 한 편의 소설을 읽는 일이 독자에게 뜻 있고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소설이 뜻 있고 유익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가의 입장에서든 주제의 문제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작가

46) 이봉채는 김동인의 「배따라기」를 예를 들어 살펴보고 있다. 「배따라기」의 주제를 내용적인 면에서 고찰하면 인생살이에 있어서는 행복이나 불행이 짐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지배되는 행로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독자가 「배따라기」를 읽기 원하고 또 읽고 있는 이유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제를 이끌어 내는 작품의 구조 때문이다. 「배따라기」에 있어서 액자에 이르는 전반부는 아름다운 부분이고 호기심과 예술적 감명으로 읽히며, 액자에서 벗어나는 후반부는 작가의 이야기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루어 매우 값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따라기」의 노래 가사가 다음 나올 이야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대로 아름답게 읽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봉채, 위의 책, 262-263면.

47) 정하영, 「〈심청전〉의 주제고」, 이상택, 성현경, 『한국고소설연구』, 새문사, 1983, 457면.

가 경험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글을 쓰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작가의 진정한 의도는 아마도 특정한 전언의 전달에 있기보다 작가가 체험한 것을 독자도 체험하게 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⁴⁸⁾

그렇더라도 주제의 문제는 작품이나 작가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쪽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주제가 소설의 구조물 내부에 성분 자질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 그 자체이고, 이야기가 독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이 발생시키는 무엇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주제를 끄집어내는 독자의 반응이란 텍스트와의 교섭의 결과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⁴⁹⁾기 때문이다.

소설은 일정한 주제를 그 어느 문학 양식보다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양식으로 설명되어 왔다.⁵⁰⁾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소설의 기본적 서술양식은 작자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독자에게 표현해 가는 것이므로, 작가는 자신이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 자신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서술해 간다. 그 과정에서 작자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성립되어 나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서 어떻게 해소되는가가 펼쳐지는데⁵¹⁾ 여기에 주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제라는 것이 이야기가 독자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의 산물⁵²⁾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요컨대, 주제는 소설에서 모든 구성 요소의 유기적인 짜임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소설의 요소 중 가장 비중 있는 것이다. 소설이 인간과 사회의 관계의 어느 한 단면을 포착하는 것이라면 작가가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주제 속에 들어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의식, 즉 주제이다. 소설의 궁극적 목적을 내면화라

48) 한용환, 앞의 글, 31-33면.

49) 한용환, 위의 글, 32면.

50)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7, 165면.

51) 김채수, 앞의 책, 42면.

52) 한용환, 『소설의 세계』, 문학아카데미, 1993, 228면.

볼 때, 주제가 소설이 개인의 생활에 내면화되는 가치의 형상인 것이다.

소설교육은 예술적 체험의 확대와 문학적 향유 능력의 배양이라는 목표와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⁵³⁾ 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소설 읽기가 생활화될 수만 있다면 적어도 한 편의 소설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가는 모습이나 삶에 대한 이해는 이루어 질 수 있을 것⁵⁴⁾이다.

소설교육에서 주제가 갖는 중요성과 의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내면화가 주제를 통해서 마무리지어진다는 것이다. 즉 주제는 소설이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가치의 형상인 것이다. 소설교육은 문학교육의 일부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교육 과정에서는 문학 작품의 주제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가 내면화되는 것을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문학연구에서 주제 연구가 작품 연구를 마무리짓는 작업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에서 주제는 소설이라는 구조물 안에 성분 자질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가 독자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의 산물이라 했다. 즉 주제는 소설 텍스트에 담긴 것이 아니고 독자의 반응의 과정 속에 담긴다고 했다. 반면에 독자가 소설을 읽는 목적이 주제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도 또한 어느 정도 명백하다. 독자가 추구하는 것은 내용-이야기가 구체화되고 발전되는 서술의 과정일 뿐이며 이 과정을 뒤쫓으며 주제 따위는 신경도 의식하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작가의 편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자나 작가 모두에게 작품은 주제의 형태로 남겨진 다 할 수 있다. 로버트 C. 메레디쓰와 존 D. 윗제럴드는 문학작품을 해석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국어교사, 문학전공교수, 비평가들은 거의 제일 먼

53)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280면.

54) 구인환 외,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9, 235면.

저 그 작품의 주제를 알아 보려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작품의 전체적 이해나 기억에 주제가 필수적이라는 말이고, 이미 말한 바 있듯이 주제가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소설은 궁극적으로 주제라는 형태로 내면화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로 주제는 문학작품을 보는 시야를 확대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는 보편성을 지닌 세계 문학과 특수성을 지닌 우리 문학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실제 제 6차 교육 과정의 문학 교과서에서 그 활용 양상을 볼 수 있다. 한계진, 김병국, 윤여탁 공저의 『고등학교 문학(하)』(대한교과서, 1998.)에 III. 문학과 사회, 2. 현실 극복의 의지 장에 (1)풀(김수영) (2)자유(엘뤼아르 Eluard) (3)양반전(박지원) (4)인형의 집(입센 Ibsen)이 같이 다루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주제는 기존에 단절되어 학습되었던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연결하는 제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우한용, 박인기, 정병현, 최병우 공저의 『고등학교 문학(하)』(두산동아, 1998.)에서 III. 작품 세계와의 만남, [2] 사랑과 동경 장에 (1)정읍사 (2)어저 내일이야(황진이) (3)고향(정지용)이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제는 문학 작품을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포스터는 인간사는 결국 ‘태어남’, ‘밥’, ‘잠’, ‘사랑’, ‘죽음’의 대략 다섯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빚어지는 것이고 이것들이 소설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주제라 보고 있다. 이 중 ‘밥’의 문제는 가난, 빈부의 대립관계, 영혼과 물질 사이의 모순관계 등의 문제로 구체화되어 왔다. 빈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나중에 가서 계층이론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기도 했는데, 종래 가난이란 문제를 그대로 여유 있게 다루어 온 소설에 비하면 20세기 이후에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리얼리즘 계통의 소설은 ‘밥’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0년대에 ‘밥’의 문제를 사실주의의 수법을 써서 심각하게 다루었던 소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그 당시 ‘밥’의 문제는 특히 농촌 소설과 사회소설 형태를 많이 다루어졌는데 그 후 3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짙어

져 있다.⁵⁵⁾ 이처럼 주제가 주제가 지닌 문제의식은, 그것을 공시적·통시적으로 변화해 온 양상을 살피는데 있어 문학 작품을 훨씬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해 준다.

세 번째는 주제가 지닌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H. 마이에르호프는 문학적 진리의 특질을 초보편성·초항구성으로 설명하면서 문학 혹은 소설의 주제가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의 범위를 제한된 것으로 평가했다. 즉 소설에서의 주제는 독자들의 경험세계와 인식의 지평을 어느 정도 넓혀 주기는 하나 일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고 있기보다는 문제제기의 형식에 가깝다 한다. 실제로 위대한 문학은 도덕성에 반대하는 하나의 유익한 해독제이며 또 인간의 삶에 가해지는 도덕체계의 세차면서 집요한 압력으로부터의 환영할 만한 구체행위⁵⁶⁾라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역사를 만들며 살아가는 존재인 만큼 인간을 다룬 문학 작품의 주제가 지니는 문제의식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설은 문제해결의 장르라기보다 문제제기의 장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설이 문학의 다른 어느 장르보다도 인간의 삶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의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흔히 타자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소설의 주제는 충분히 그런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제가 지니는 문제의식은 어떤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가를 모색한 것으로, 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는 모습을 제시하려 한 것이기에 그렇다.

이상에서 살펴 본 주제가 가진 여러 의의 중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제시한 내면화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소설의 주제는 가치의 형태로 제시되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그 가치가 내면화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⁵⁷⁾ 물론 내면화는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55) 조남현, 위의 책, 177-179면.

56) 조남현, 위의 책, 175면.

57) 크라스웰(Krathwohl)은 가치 형성의 과정으로 내면화를 제시한다. 그는 인간은

관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는 논의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내면화되는 형태인 가치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3. 소설교육에서 주제와 가치관

소설을 포함한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관한 가치 지향적 행위이다.⁵⁸⁾ 여기서 가치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가치를 말한다. 문학은 일반적으로 예술의 하위 장으로 인식되지만, 다른 어느 예술보다도 가치 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그 이유는 문학의 매체가 본질적으로 가치와 무관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작자의 철학과 사상, 작품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작품에 담긴 세계관과 인간형 등이 자주 문제되는 것도 문학의 가치 지향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육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화 작용을 돕는 행위라고 한다면, 어떤 교과 교육에서든지 가치관의 측면은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에서 가치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국어과 교육에서도 문학 교육은 가치관의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된다. 김은전⁵⁹⁾은 교육을 인간의 가치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규정한다면, 문학 감상의 효용은 곧 교육의 효용과 동등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고 까지 했다. 이 말은 문학

어떤 가치를 감지할 따름만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하여 반응하며 그 가치를 가치롭게 여기고 그 가치를 다른 여러 가치들과 조합함으로써 그의 가치체계 속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며, 나아가 그 가치가 그의 성격의 근본적 특징의 하나가 되는 정도까지 내면화될 수 있다고 한다. 그 내면화의 과정을 계기별로 보면 (1)감수 (2)반응 (3)가치화 (4)조직화 (5)성격화들이 있다. 견학필 외, 『사회와 가치』, 경성대 출판부, 1994, 42면.

58)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308면.

59) 김은전, 「국어교육과 문학교육」, 『사대논총』 19, 서울대 사범대, 1979, 7면, 박경수, 앞의 글, 280면에서 재인용.

의 효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문학이 가치있는 인간적 체험의 기록이란 전제에 따라 문학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재인식하고 깨닫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문학 교육에서 이렇게 가치관의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된다면, 소설 양식은 문학의 어느 다른 양식보다도 가치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이야기 자체도 흥미를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이야기에 담겨지고 형상화되는 의미도 이에 못지 않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에 담겨지고 형상화되는 의미를 주제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가치관의 문제는 주제의 내용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문학의 주제는 곧 가치관 자체는 아니며, 이 둘의 개념은 마땅히 구별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문학의 주제는 작품에 구현되는 작가의 삶과 세계에 대한 이념과 사상, 또는 작품의 내용을 통하여 표현되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파악되어 왔다. 이는 문학의 주제를 내용적인 차원에서 파악한 것으로, 주제가 내용을 종합한 이념과 사상이란 추상적 관념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 파악의 입장은 문학에서 주제를 역사나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체계, 즉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거의 동일시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인정했던 것이다.⁶⁰⁾

교육 과정에서는 가치를 위에서처럼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유의미한’ 어떤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런데 가치는 본래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이며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져 문화적 차원에서 논의된 개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문화인류학적 입장 뿐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입장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범모는 가치를 ‘욕구나 욕망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행동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60) 박경수, 위의 글, 280면.

것에 관한 정적인 작용의 측면이며, 선택 결정해야 하는 견지에서 볼 때 가치란 하나의 의지작용(意志作用)을 내포한다'고 정의하였다. 또 가치관은 '여러 가지 인간 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남궁달화는 가치를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규정해 주는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으로, 가치관은 '글자 그대로 가치에 대한 관점 또는 견해'라고 하였다.

로키치(Rokeach)는 가치란 '어떤 특정한 행위의 모습 또는 존재의 목적 상태를 이와 반대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더 좋아하는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하고, 가치관이란 '상대적 중요성의 연속선에 따라 더 좋아하는 행위의 모습 또는 존재의 목적상태에 관한 신념의 지속적인 조직이며 갈등해결의 목적에 알맞게 가치들이 위계적 순서로 정렬된 하나의 조직' 이라 한다.

클러크혼(Kluckhohn)은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구별하는 내현적 혹은 외현적 개념으로 행동의 여러 가지 가능한 양식과 수단 및 목표 중에서 선택할 때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개념'이라 하고, 가치관은 '부단히 계속되는 인간 행동의 흐름에 대하여 질서와 행동을 제시해 주고 공통적인 인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서 분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평가 과정이며, 인지적인 것, 정의적인 것, 방향 제시 등의 세 가지 요소가 완전히 상호작용 함으로써 일어나는 복합적이면서, 일정한 유형을 가진 원칙'이라 한다.⁶¹⁾ 김대수는 이런 여러 개념 정의를 하나 하나 검토하여 가치를 '둘 이상의 행위의 대상에서 가장 낮다고 판단된 신념'이라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가치관은 이러한 가치들에 의한 행위의 경험이 여러 번 쌓여서 그 사람에게는 복합적인 가치가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가치의 선택으로 바라보는 신념'이 가치관이라 한다.⁶²⁾

61) 박승만, 「정선 아라리에 나타난 가치관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2000, 9-10면.

62) 김대수, 『태도 형성론』, 우신출판사, 1993.

대부분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을 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그 둘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치’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치관’을 많이 쓴다. 본고에서는 정범모가 제시한 ‘가치’와 ‘가치관’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겠다.

가치관은 로키치에 의하면 활동을 인도하는 기준으로서의 기능, 갈등을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일반적 계훈으로서의 기능, 인간의 기본요구를 나타내는 동기유발적인 기능이 있다. 이것은 가치란 문화적으로 전승된 사회 생활의 규범적 원리와 선악시비를 판단하는 평가적 표준이며, 이는 구성원 개인의 사회화 내지는 학습과정을 통해서 내면화된 심리적 특성으로 사회적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규정하는 동기적 기능을 갖는 정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념, 신념, 윤리, 도덕 규범 등을 포함하는 평가적 기준인 외재적 가치관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특성들의 조직을 체계화하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며 행동의 통일성, 일관성,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면서 나아가 사회적 동질성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적 통합과 안정 질서 결속을 유지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이렇게 가치관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다.⁶³⁾

위의 여러 학자들의 가치와 가치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 공통점을 읽어낼 수 있다. 첫째, 가치와 가치관은 문화의 산물이며 개인의 학습을 통해서 내면화된 심리적 구조 및 체계이다. 둘째,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 방향과 목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평가적 기준 및 신념인 동시에 사회적 표준 이념 및 규준이다. 셋째, 가치관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개인 행동이 아닌 개인의 심리적 체계 내에 내면화 되어있는 추상적 개념이다.⁶⁴⁾ 즉, 가치관은 개인이 행동의 방향과 목표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기준이나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나 신념은 그가 속해 있

63) 견학필 외, 앞의 책, 32-34면.

64) 채미영, 『아시아 전래동화와 유럽 전래동화에 나타난 가치관 분석』, 한국교원대 석사, 1993, 21면.

는 문화에 종속된 것이다.

이것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시사한다. 하나는 가치관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뜻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즉, 선악 또는 시비 따위의 실천적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가치관은 ‘관념으로서의 가치관’과 ‘행동의 원동력으로서의 가치관’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다.⁶⁵⁾

다른 하나는 가치관은 문화의 구성 요소이며, 문화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가치관은 문화의 유형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 침투하는 문화에 의해 지배된다. 한 사회에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있듯이 그 사회 안에는 동일한 경향을 띤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 특유의 문화에 의해 통제된 가치관을 개인이 받아들임으로써 문화가 개인의 가치관을 지배한다. 개인의 가치관은 문화에 의해 통제되는 수동적인 문화의 한 유형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는 추상적 신념으로서 문화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가치는 문화적 산물로 소설을 포함한 문학 작품에 나타나 있는 가치를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속에 내포된 문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 종교와 예술 등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살피는 넓은 시야와 인간 심리의 심층에 대한 깊은 통찰까지도 가능한 것이다.⁶⁶⁾

나머지는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와 가치관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 가치관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가치가 둘 이상의 행위의 심리적 대상에서 선택된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가치로 선택하기 전에는 항상 둘 이상의 대상이 갈등의 사태로 제시되고 이러한 갈등의 대상을 사고와 감정의 작용에 의하여 가장 낫다고 판단한

65) 김태길, 『우리들의 가치의식과 한국의 장래』,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문음사, 1982, 160면.

66) 김태길, 위의 글, 162면.

것이 신념으로 선택되는데 이것이 가치이다. 둘째, 가치는 그 위계로 보아 지(知)의 최후 판단이며 정(情)의 복합체라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대하면 지식→이해→사고→판단의 단계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판단과 감정의 작용에 의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선택의 차원에서 그것이 낫다는 신념이 생긴다. 이렇게 생기는 신념이 가치로 그러므로 가치는 지(知)를 모두 거친 최후의 판단이며 아울러 감정 이입(移入)이 된 것이다. 셋째, 가치는 의(意)의 행동 요소를 가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 가운데 지(知)와 정(情)은 가치의 전 단계에 해당하였다. 가치는 관심과 신념 등의 의가 포함되므로 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도나 의지의 선택이 가치이고 그 강도는 태도에 속하는 것이다. 넷째, 가치는 후 단계로 태도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가치는 개인이 낫다고 판단한 신념이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치는 개인적으로 보아 낫다고 판단했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여섯째, 가치는 어느 정도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일곱째, 가치는 가치 체제 또는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대상에 대하여 수시로 판단한 가치는 한 방향으로 모아져서 그 사람이 어떤 심리적 대상에서는 복합된 일관성의 가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가치관이다.⁶⁷⁾

가치, 가치관이 이렇게 여러 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유형도 다양하다. 여러 기준과 형태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 가치’ ‘집단적 가치’ ‘보통적 가치’로 분류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스테른(Stern)의 분류⁶⁸⁾로 개인적 가치는 평가하는 주관이 개인적 특질에 의한 가치인데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가치이고, 집단적 가치는 평가하는 주관이 집단적 특징에 의존하는 가치이며, 보통적 가치는 평가하는 주관이 개인적 특질에도 집단적 특질에도 의존하지 않는 가치를 말한다.

둘째는 ‘전통적 가치관’ ‘현대적 가치관’으로 분류하는 유형이다. 스펀들러

67) 김대수, 앞의 책, 71-75면.

68) 채미영, 앞의 글, 24면.

(Spindler)⁶⁹⁾, 파슨즈(Parsons)⁷⁰⁾와 우리 나라의 정원식⁷¹⁾과 이재창⁷²⁾의 분류이다. 스펀들러는 전통적 가치관으로 절대적 도덕성, 근로-성공의 윤리, 개인주의, 업적주의, 미래지향주의를 들고 현대적 가치관으로 상대적 도덕성, 사회성, 타인에 대한 관심, 향락주의, 현재지향주의를 들고 있다. 파슨즈는 전근대적-근대적 대비의 가치관으로 감정지향-감정중립, 집합체지향성-자기지향성, 특수주의-보편주의, 귀속성-업적성, 확산성-명세성을 들고 있다. 정원식은 전통적 가치관은 효도, 혈연존중, 형제우애, 가풍존중, 남존여비, 권선징악, 근면, 우정, 봉사, 협동, 정직, 겸손, 예절, 순결, 신앙, 중용이고 현대적 가치관은 합리, 성취, 보상, 검약, 책임, 개방, 자립, 자신, 용기, 쾌락, 조화, 심미, 정의라 한다. 이재창은 전통성과 근대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주의적 행동유형-물질주의적 행동유형, 편법주의적 행동유형-정당주의적 행동유형, 명분주의적 행동유형-실리주의적 행동유형, 온정주의적 행동유형-합리주의적 행동유형을 들고 있다.

셋째는 ‘궁극적 가치’ ‘수단적 가치’로 이것은 로키치(Rokeach)⁷³⁾의 분류이다. 수단적 가치는 행위의 수단이 되는 가치로 어떤 목적의 가치를 지향하는 과정의 가치이다. 이것은 다시 도덕적 가치와 능력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도덕적 가치는 도덕적 규범이 모두 해당되며 행위로 실천하지 못했으면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마음이 넓은, 용서하는 협조적인, 정직한, 애정 있는, 복종의, 친절한, 책임 있는’ 가치가 속한다. 능력적 가치는 교육이나 학습의 목표에서와 같이 능력을 획득한 가치로 행위로 잘 옮기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야심적인, 유능한, 쾌활한, 깨끗한, 용기 있는, 상상력이 있는, 독립적

69) 건학필 외, 앞의 책, 45-46면.

70) 건학필 외, 위의 책, 46면.

71) 채미영, 앞의 글, 24면.

72) 건학필 외, 앞의 책, 48면.

73) 정세구, 『가치이론과 가치교육』, 교육출판사, 1983, 42-45면. 정세구는 ‘종착적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궁극적 가치’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한다.

인, 지적인, 논리적인, 극기의' 가치가 속한다.

궁극적 가치는 행위의 목적이 되는 가치로 수단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이다. 이것은 다시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가치에는 '안락한 생활, 흥분에 찬 생활, 성취감, 평화로운 세계, 자유, 행복, 내적 조화, 쾌락, 구세, 자존, 현명'을 들고 있고, 사회적 가치에는 '미의 세계, 평등, 가정의 안전, 성숙된 사랑, 국가안보, 사회적 인정, 진실한 우정'을 들고 있다.

넷째는 인간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클라크혼(Kluckhohn)⁷⁴⁾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중요한 문제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가치 지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 공통된 인간의 문제를 (1)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무엇인가?(인간 본성관) (2)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인간 대 자연관) (3)인간 생활에 있어서 시간적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시간관) (4)인간의 활동 유형은 어떠한 것인가?(활동관) (5)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인간관계관) 등으로 보았다. 클라크혼은 위의 각각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치 지향성으로 세분하였다.

가 치 관	가 치 지 향 성 의 범 주		
인간본성관	악	선·악의 혼합	선
인간 대 자연관	종속	조화	정복
시간관	과거	현재	미래
인간활동관	존재	생성	행동
인간관계관	종적	횡적	개인적

<표 3> 클라크혼의 가치지향성의 범주

74) 채미영, 앞의 글, 21-24면.

그리고 정범모⁷⁵⁾는 전통과 발전이라는 대조를 전상에 두고 크게 6개의 유형을 들어 발전에 수반되어야 할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가치관을 자연관, 인간관, 시간관, 인생관, 사회관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하위의 지향성의 범주는 아래와 같이 나누고 있다.

가 치 지 향 성 의 범 주			
자연관	혼돈관 - 질서관	불변관 - 변화관	
인간관	예속관 - 조화관	주체관	
시간관	과거지향 - 현재지향	미래지향	
인생관	쾌락관 - 수양관	활동관	
사회관	종적관계관-횡적관계관-개인주의	귀속주의-업적주의	특정주의-보편주의

<표 4> 정범모의 가치지향성의 범주

본고에서는 위의 네 유형 중 소설 교육의 의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류인 네 번째의 가치관 모형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소설 작품의 주제에 내포된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75)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태영사, 1981, 33-75면.

Ⅲ. 소설 주제의 가치지향

앞장에서 살펴 본 바 있는, 소설이 인간과 사회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소설의 주제가 설 수 있는 근거와 연결된다. 소설에 있어서 작가가 펼치는 주제의식의 명분과 근거는 바로 휴머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소설에서의 주제의식은 어떤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가를 모색한 것이고 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는 모습을 제시하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을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불투명한 폭력의 실체를 벗겨 보려 한 데서 작가가 갖는 주제의식이 결국 휴머니즘 정신에 근거하는 것⁷⁶⁾임을 알 수 있다. 달스트롬이 인간의 일정한 측면에 대한 작가적 관심을 변수로 해서 주제의 범위와 방향이 잡힐 수 있다고 한 것⁷⁷⁾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의 주제는 한 마디로 ‘인간적 가치’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적 가치라는 말은 매우 넓은 의미로 인간의 정신 및 육체에 깃들 수 있는 모든 가치를 통틀어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가진 도덕적 인품, 학식, 예술적 기능 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의 생명, 건강, 육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스포츠 기능 따위도 인간적 가치의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찬란한 민족 문화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업적도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것⁷⁸⁾으로 간주된다.

인간적 가치는 크게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고범서에 의하면 ‘내적 가치’는 개인의 존재에 관련된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외적 가치’

76) 조남현, 앞의 책, 166면.

77) 조남현, 위의 책, 169면.

78) 김태길, 앞의 글, 187면.

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와 사회의 관계 등 관계에 관련된 가치를 말한다.⁷⁹⁾

1. 소설의 주제

1.1. 내적 가치지향의 주제

1.1.1.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 - 「이해의 선물」

「이해의 선물」은 ‘문학의 즐거움’이라는 대단원 속의 소단원이다. 이 단원은 문학의 위기로 운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학 작품 속에는 영화나 텔레비전, 컴퓨터가 제공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으며, 그 즐거움은 학생들에게 알려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지 58면)⁸⁰⁾에 ‘국어 수업 시간만이라도 양질의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지 58면) 하려는 의도로 설정된 단원이다.

이런 설정 이유를 가진 단원의 작품인 「이해의 선물」은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감동을 전해주는 소설 작품’(지 77면)으로 ‘어린이의 천진 난만한 세계와 이를 이해하고 지켜주려는 어른의 노력이 두 개의 사건 구조를 통해 감동적으로 전달되고 있다.’(지 77면) ‘돈과 거래가 배제된 순진한 어린이의 논리와 정상적인 거래가 오가는 어른의 논리가 대립되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는 어른

79) 고범서는 인간존재적, 인간관계적 포괄성, 시공간적 포괄성을 기준으로 가치를 크게 ‘존재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한다. 고범서, 『가치관과 교육』, 나남, 1990.

80) 교육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58면. 이하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과 교과서 내용의 인용은 따옴표 안에 표기하고, 쪽수는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는 (지 ○○면)의 형태로, 교과서의 경우는 (교 ○○면)의 형태로 표기한다.

의 아량과 이해심이 세월을 넘어 어린이가 어른이 됨으로써 다시 실현해 보게 된다는 줄거리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이 느껴'(지 77면)지는 작품이다.

‘소설을 읽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한 다음, 이 소설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이나 감동적이었던 장면, 그리고 내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면 소설 속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지 77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심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를 가지게 될 것’(지 77면)이라 한다.

그 감동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이 작품은 보통 때와는 다르게 ‘한숨에 죽 읽고 감동을 느껴 보’(지 79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했다. 그리고 학습 활동에서도 아름다운 이해의 장면을 찾아보는 것과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 때 학습자라면 어떤 장면에 가장 정성을 들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작품이 주는 감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작품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이해의 선물」의 주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심성이다. 어른의 이해심이 어린이들의 순진함을 현실적인 이해 관계를 떠나서 잘 보전해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작품이 드러내는 바이다. 아울러 이 아름다운 이해가 ‘나’의 경우처럼 다음 세대로 연결되리라는 기대 또한 이 작품이 의도하는 바일 것이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으리라 믿어지는 아름다운 마음, 그것을 지켜 주려는 어른의 노력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나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인식도 이 작품에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 작품의 핵심적 가치는 인간 존중의 태도⁸¹⁾에 있다는 견해의 수렴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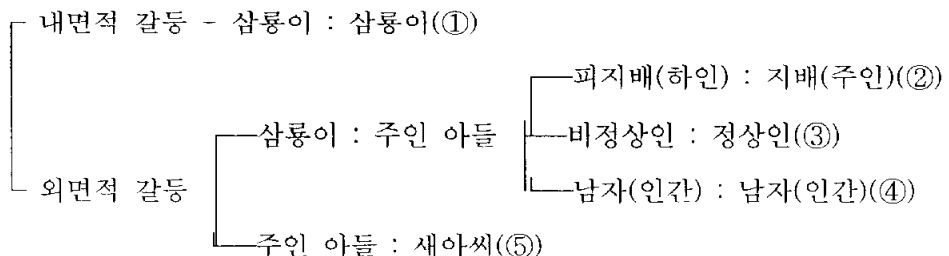
81) 주현숙,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가치관 분석 및 개선방안」, 전남대 석사, 1993, 51면.

1.1.2. 인간적 각성 - 「병어리 삼룡이」

「병어리 삼룡이」는 ‘삶과 갈등’의 보충·심화에 있는 작품이다. 소설에서 갈등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갈등의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할 때, 작품의 의미를 보다 깊게 그리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지 196면) 「병어리 삼룡이」는 지도서에 작품의 주제를 알 수 있을 만한 해설은 없고, 단지 난이도가 높은 작품으로 ‘사건 전개에 따라 주인공 삼룡이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정리해 보는 활동’(지 218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주인공 삼룡이가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감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는 하다.

삼룡이의 내면적 갈등을 포함해 이 작품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위에서 말한 주인공의 사건 전개에 따른 심리 변화, 즉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공이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택한 죽음이 의미하는 바이며, 나머지 하나는 주인공 삼룡이라는 인물의 특이성이다.

먼저 작품에 드러난 갈등부터 살펴보자. 작품에 드러난 갈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에서 보이는 갈등을 정리하면 주된 갈등은 ①로, 이것은 ⑤가 계기가 되어 ①과 ④를 동시에 유발하여 잠시 ②를 거쳐 다시 ①이 된 것이다. 여기서 ③은 무시될 정도로 미약하다. 비정상인이라는 이유로 삼룡이가 종종 무시되지만 정작 본인인 삼룡이는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삼룡이가 결국에 하인이나 병어리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보아서도 그렇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된 갈등인 삼룡이와 주인 아들과의 갈등은 주인 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 갈등의 양상은 단순한 차원에 머문다. 아니 오히려 삼룡이의 특수한 처지로 인해 오히려 삼룡이 혼자만의 내적 갈등의 수준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 갈등은 고조되는데, 주인 아들과 삼룡이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 사건은 주인 아들이 색시에게 맹목적으로 구타를 하는 것이다.⁸²⁾ 이것으로 인해 삼룡이는 예쁘고, 유순하고, 얌전하며, 선녀와 같은 색시를 때리는 주인 아들의 행위에 의혹을 갖게⁸³⁾되는데, 이러한 의혹은 주인집 새아씨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순수한 연모의 정으로 변하게 된다.

82) 김병옥에 의하면, 주인 아들은 자기보다 두 살이나 위인 아름답고 얌전한 아내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낀다. 그것은 그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주위에서 그렇게 되게끔 했다. 주위의 말 좋아하는 여인들과 그의 어머니, 또 그의 고모의 말을 듣고 그는 그 자신을 반성하기는커녕 그 아내에 대한 증오로써 그의 열등의식을 전위시키려 했다. 그 첫 반응이 색시 방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 그의 가족들이 억지로 색시 방에 들어가도록 떠밀어 넣다시피 하는 데서 그의 성격은 공격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는 그의 아내를 무슨 핑계라도 걸어서 때리게 되었다. 이 새디스트적인 확대는 근원적으로 열등의식의 해소의 한 방편인 셈이다. 김병옥, 「나도항의 <병어리 삼룡이>」, 이재선·조동일, 『한국현대소설 작품론』, 문장, 1981, 160면.

83) 한혜선은 아래의 표와 같이 삼룡이와 새색시는 신체적으로 대립해 있는데 주인 아들에 의해서 현실에서는 같은 층위에 있게 되면서 삼룡이의 세계관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라 한다. 한혜선, 『한국소설과 결손인물』, 국학자료원, 2000, 32면.

	A	B	B'
삼 룡 이	병어리=개나 돼지	언어 맞다	언어 맞는다
새 색 시	예쁘다=선녀	언어 맞지 않는다	↔언어 맞는다

자연히 삼룡이의 마음 속엔 연민의 정과 의분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또한 삼룡이의 내적 갈등의 일단이기도 하다.⁸⁴⁾

두 번째 사건은, 어린 주인이 술에 잔뜩 취하여 무지한 놈에게 맞아서 길에 자빠진 것을 업어다가 안으로 들여다 누인 일로 색시가 감사의 표시로 삼룡이에게 부시쌈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새아씨는 주인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삼룡이는 의분에 못 이겨 새서방을 내던지고 새아씨를 돌려메게 되는 것이다. 삼룡이가 이제까지 마음 속으로만 먹었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된 이 부분이 이 작품에서는 전환점이 된다. 또 다시 그는 주인 아들에게 심한 매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대항하지 않고 용서를 빌 뿐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의 마음 속에 정의감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한다.

병어리는 다만 두 손으로 빌 뿐이었다. 말도 못하고 고개를 몇 백 번 코가 닿도록 그저 용서해 달라고 빌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선 비로소 숨겨져 있던 정의감(正義感)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교 205면)

이것이 중요한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 작품의 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지게 된다. 또한 이것이 나중에 그가 주인집에 불을 지르는 복선이 된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 삼룡이에게는 안방 출입이 금지되고, 이것은 결국 새아씨를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그 결과 삼룡이는 더욱 새댁이 보고 싶어지게 된다.⁸⁵⁾

세 번째 사건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사건으로 새댁이 죽으려고 목을 맨 것을 삼룡이가 담을 넘어 안채로 들어가 새댁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삼룡이와 새댁이 어떤 불륜의 관계에 빠진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삼룡이는 다시 모진 매를 맞게 된다.

84) 김병욱, 위의 글, 160-161면.

85) 김병욱, 위의 글, 160-161면.

주인 아들과 삼룡이와의 갈등이 드러나는 이 세 사건과 이로 인한 삼룡이의 심정 상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주인집 새아씨를 사이에 놓고 벌어지는 삼각관계에서 병어리인 삼룡이가 인간적인 각성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중심적인 갈등이 주인 아들과 삼룡이 상이한 계층에 따른 대립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하고, 새아씨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랑의 치정극에 관계된 대립⁸⁶⁾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삼룡이가 새아씨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분에 넘치는 것은 ‘마치 살구를 보면 입 속에 침이 도는 것 같이 본능적으로 느끼’(교 204면)는 감정이다. 본능은 그에게 정의감을 가르쳐 주고 마침내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자기의 원수’(교 208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개인의 주체화와 사회적 탄생이 성적 탄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표현된 것⁸⁷⁾이라는 지적인 공감할 만하다.

다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의 의미를 살펴보자. 주인 아들이 내린 추방 명령은 삼룡이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그것보다 그는 이 집에서 살고 죽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인 아들에게 매달려 애걸하였으나 주인 아들은 삼룡이를 발길로 차고 사람을 불러 그를 내쫓았다. 그의 충성이 이러한 결과에 다 다른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를 새로운 국면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어 그는 그의 갈등을 폭력적인 방화로써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⁸⁸⁾

86) 삼룡이와 주인 아들의 대립이 사회적 문맥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새아씨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치정극으로 연출하는 데 머물고 있는 이유를 삼룡이의 신체적 조건인 병어리에서 찾고 있는 견해도 있다. 병어리라는 인물의 성격 구조에 있어 그로테스크한 면모를 부각시켜 삼룡이와 주인 아들의 대립이 계층적 대립이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위의 글, 86면.

87) 박현호, 『나도향과 옥망의 문제』, 상허학회, 『1920년대 동인지 문학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 314면.

88) 김병욱, 위의 글, 162면.

결국 삼룡이는 불길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지만 새댁을 안은 그는 오히려 절대절명의 불길 속에서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웃음’(교 209면)을 웃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랑의 희열을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재생을 뜻하기도 한다.⁸⁹⁾ 이 죽음은 모든 것의 화해다. 이 경지에서는 현실 생활에서 빚어진 모든 갈등은 무화되고 만다. 죽음을 통한 인간의 완성이란 일회적 인간 삶을 영원한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 죽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해주는 죽음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물 설정의 특징을 살펴보자. 주인공 삼룡이는 작가인 나도향이 다른 작품에서 즐겨 다루는 인물처럼 농촌에서도 최하위의 계급 인물이 주인공이 된 경우이고, 황폐한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궁핍한 생활에 젖어 있으나 그러한 생활의 절실한 문제 해결에 고심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대의 사회상, 또는 현실적 문맥에서 야기되는 괴로움의 모습이 아니라, 미의식에 지배받는 것⁹⁰⁾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에 나타난 주제 의식을 사회적 입각점에서 파악할 성질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삼룡이가 병어리라는 것과 움두꺼비가 서서 다니는 것 같은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근본적으로 정직하고 충직한 것에 어울리는 순진한 외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형상화된 것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가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새아씨에 의해 자신에게 행해지는 대우가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고,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것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나 병어리인 삼룡이가 타인과의 소통의 수단인 언어라는 매체를 사용

89) 여기에서 죽음 그 자체는 새로운 국면에 접하게 된다. 즉 당시에 유행했던 폭력적인 죽음, 곧 자아의 구원이나 신의 은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삶의 완성이란 의미도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죽음, 즉 육체성을 무시하고 정신적 승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병욱, 앞의 글, 163면.

90) 이강언, 「나도향의 후기 작품론」, 국어국문학회 편, 『현대소설연구』, 정음사, 1982, 85-86면.

할 수 없을 때,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자신의 내부세계를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⁹¹⁾ 이 작품의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은 이처럼 삼룡이가 병어리라는 것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삼룡이가 병어리라는 것 때문에 차별된 세계로 소외당할 뿐 아니라, 결국은 주인 아들에게 추방당하게 되는 상황, 삼룡이로서는 의미 전달이 차단된 상황에서 오생원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은 필연적 행위이고,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는 새서방을 뿌리치는 것은 말 못하는 자의 강력한 의사표현인 것이다. 불에 타 죽는 순간 삼룡이의 입가에 머문, 처음으로 살아난 듯한 행복한 웃음은 곧 출입할 수 없는 문을 죽음에 의해서만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죽는 순간 처음으로 살아나는 행복한 웃음을 웃는 것이다. 이 때 비로소 삼룡이는 여러 겹의 출입할 수 없는 문을 넘어서는 것이다. 새색시를 매체로, 차별 세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해방되는, ‘—’ 징표로부터 탈출이 이루어진 것이다.⁹²⁾

정리하면, 삼룡이와 주인 아들과의 갈등과 삼룡이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 삼룡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눈뜨게 되는데, 그것은 삼룡이가 새아씨에게서 비로소 느꼈던 인간으로서의 각성, 특히 남성으로서의 인간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박헌호는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개인의 주체화와 사회적 탄생이 성적 탄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⁹³⁾이라 한다.

91) 한혜선, 앞의 책, 32면.

92) 한혜선, 위의 책, 33-51면.

93) 또 그는 나도향의 문학은 낭만적이기도 하나 다른 작가의 작품과 달리 일방적으로 정신의 가치를 표방하는 것으로 성욕의 문제를 은폐하지 않고 성욕을 인간의 일반적 존재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박헌호, 위의 글, 300-302면. 또한 그는 나도향을 이성과 욕망의 갈등에 주목하여 자신을 인식,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분열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도전함으로써 주체성과 식민지성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도향은 근대적 이성에 반하여 분출하는 성욕의 문제를 전면화한 거의 유일한 작가이며, 성욕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현실의 변증법적 결합에 도달한 유일한 작가로 내면과 현실에 대한 강조가 각기 편향적으로 전개돼 왔던 한국 근대 소설사를 고려할 때 특기할 점이라 한다. 박헌호, 위의 글, 323면.

인간사는 갈등과 해결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해결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존재에 눈 떠 간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존재에 대해 눈뜨게 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 「멍어리 삼룡이」가 보여주는 갈등의 복합적 양상은 의미가 있지만, 교사용 지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이 소단원 제재보다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1.1.3. 전인적인 삶의 지향 - 『소설 동의보감』, 「우산장수 할아버지」

『소설 동의보감』은 ‘삶과 갈등’에 실린 소단원이다. 『소설 동의보감』은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수록되지는 못하고 ‘갈등이 잘 드러나는 부분’(지 196면)이 실렸는데⁹⁴⁾, 지도서에 의하면 이 작품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갈등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함은 물론 ‘소설 작품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실제 TV에서 방영되었던 점이 고려된 듯하다.

이 작품은 흔히 말하는 대중소설⁹⁵⁾이다. 그러나 문학사에서 독자가 문학을 중개하는 심판자이고 대중도 그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의 하나라면, 소수의 독자가 고급독자이고 다수의 독자가 대중 독자라는 단순 논리는 극복되어야 한다는 박남훈⁹⁶⁾의 견해와 대중문화이론의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

94)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상, 중, 하』, 창작과 비평사, 1990, 세 권 중에서 중, 94-105면 부분이 실렸다.

95) 통속소설. 대중에게 흥미 위주의 통속적인 소재를 다룬 소설. 주제나 성격 묘사 보다는 독자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줄거리 위주로 엮어 나가는 데 그 특색이 있다. 문체에 까다로운 점이 없고, 인물이 유형적이며 줄거리나 플롯에도 안이한 점이 드러난다. 그런 뜻에서 통속소설은 대중소설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며 오락소설·중간소설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www. yahoo. co. kr.

96) 박남훈, 「대중-문학의 소비자 혹은 심판자」, 『문학정신』 70, 1992.

양식이 대중의 구미에 맞추어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소설이나 순수소설의 기준으로 소설을 평가하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한 뢰벤탈(Leo Löwenthal)의 견해는 대중소설의 새로운 의미 부여의 필요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 이병훈⁹⁷⁾이 살펴보고 있는 『소설 동의보감』과 우리 시대의 독자들이 맺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관계나 한만수⁹⁸⁾가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서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대 문학을 당대 문화라는 좀 더 큰 테두리 속에 넣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소설 동의보감』의 교과서 수록은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⁹⁹⁾

그렇더라도 『소설 동의보감』이 소설로서 가지는 한계 또한 명백하다. 비중

97) 이병훈, 「소설 『동의보감』의 대중적 친화력, 그 근원과 한계」, 『고대문화』 36, 1992.

98) 한만수, 「9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 그 세계관과 오락성」, 『한국문학연구』 20, 동국대학교, 1998.

99) 그런 만큼 이 작품을 제대로 살펴보는 데는 문학적 맥락만이 아니라, 이 작품이 생산되어 360만 부를 돌파하고 ‘소설’ 돌림자의 시원이 될 수 있었던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남훈은 『소설 동의보감』 수용의 근거를 한방이라는 소재의 참신함, 세속적 성공보다 의술의 시행자로서의 인격적 자질을 갖추하고자 하는 의지, 소설적 재미 등 세 가지를 든다. 박남훈, 위의 글, 52-54면. 이병훈은 세기말의 징후인 개인의 실존과 운명에 대한 관심, 대중들의 보신주의와 주인공 허준을 통한 대리 충족의 욕구를 더 들고 있다. 이병훈, 위의 글, 155-158면. 한만수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문학이 문화산업 전반에 대해 식민지적 원자재 공급창고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이 거대해짐에 따라 점점 그 논리 속에 포섭되어 가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관점에서 이 작품이 90년대 우리 나라 사회, 문화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요한 흐름들을 나타내 보여 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 흐름 중 하나인 과거 회귀의 지향은 80년대 노동소설의 전망성과는 대조적이고, 그리고 선악 이분법의 구성은 내면적 반성적 공간을 허용치 않아 독서의 질보다 속도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대중소설이라는 편하의 뜻이 따라붙게 된다고 한다. 또 이 작품은 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데, 허준의 심의론(心醫論)이 준 충격을 통해 가장 일상적인 몸의 문제에서 거대한 힘의 문제를 생각하게 해 주는 것이다. 한만수, 앞의 글, 194-208면.

또 박남훈은 또 소설 문학의 흐름 속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짚어 보고 있는데, 변혁 논리와 이념으로 충만한 리얼리즘 문학의 정신적 공백을 매우지 못하는 소위 포스트모던 소설들이나 해체논리들을 어느 정도 채워 주는 그런 주제적 무게를 이 소설이 지니고 있고 또 주인공 허준이 계급적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아를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박애정신으로 지양해 가는 과정이 계급적 분노나 체제저항 논리를 절대적인 선으로 간주해 온 진보적 진영의 문학 논리에 석상한 대중들의 새로움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었으리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한다. 박남훈, 앞의 글, 54면.

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중의 흥미를 염두에 둔 소설이기에 우연성이 남발하고, 언어의 사용과 인물 창조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이지 못하며 오로지 한 인물의 시각에만 의존해서 그 시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 해도, 학습자들이 처하게 될 현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작품의 교과서 수록은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교과서가 다루는 문학의 영역이 실제 학습자의 글을 다룰 정도로 열린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학습자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대중 문학의 유혹을 더 많이 받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대중 소설에 대해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작품을 대중 소설로서 지도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지도서에도 교과서에도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이것은 ‘읽기 전에’에 있는 활동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설 동의보감』은 처음부터 소설로 작성하고 씌어진 것이 아니고 TV 드라마로 반영된 것이 나중에 소설로 씌어진, 그리고 완결되지도 않은 특이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리에도 왕명에도 신분에도 정분에도 한 눈 팔지 않고 그제 누구의 병이든 오로지 병 낫우는 스스로의 직분, 천분에만 온 정성을 바치는 어가찬 한 인간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천(天)·지(地)·인(人)의 합일 사상의 구체화¹⁰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원으로서의 전인적인 삶을 지향하는 허준의 모습은 자신의 현실적 삶을 반성하는 독서 과정을 체험¹⁰¹⁾하게 하는 의의를 지닌다.

『우산장수 할아버지』는 ‘문학과 독자’의 보충·심화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즉 독자가 작품 속에 드러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작품 이해와 감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본 단원의 작품으로 학습

100) 이진섭, 「내가 아는 이은성」,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하』, 창작과 비평사, 1990, 309면.

101) 박남훈, 앞의 글, 53면.

을 한 학습자가 자신의 힘으로 앞서 배운 것들을 읽어내도록 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 할아버지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비를 맞고 그 날 저녁 심한 열로 죽은 동생을 잊지 못해 우산 가게를 하면서 못쓰게 된 우산을 고쳐 사람들이 그냥 쓰도록 나눠준다는 이야기이다. 교과서에는 할아버지가 무료로 우산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된 이유인 어린 시절 이야기가 빠져 있어 작품 속에 나타난 시대 상황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록되지 않은 부분에 나타난 시대 상황도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되지 않은 것이어서 시대 상황을 읽어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저 남쪽지방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났단다.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살던 때라 너무나 어려웠었지. 그래서 우산이나 비옷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온 몸에 비를 흠뻑 맞고 흙탕길을 뛰어서 집에 오곤 했단다.”

할아버지는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더니 휴 하고 한숨을 길게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말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누이동생이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대 같은 비가 사정없이 쏟아졌던 거야. 내 누이동생은 하는 수 없이 흠뻑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그 때 같은 마을에 사는 부자집 딸이 내 누이 동생을 보고 물에 빠진 새양귀라고 놀리기까지 했던 거야.”

“그 부자집 딸은 우산을 쓰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렇지. 자기 아버지가 일본 경찰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쁜 꽃 우산을 사다줬던 거야.”(밀줄은 필자)¹⁰²⁾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시대적 상황이 작품의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지 못하고 그냥 제시되고 있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대적 상황의 의미를

102) pbooks. zzagn. net / home. html.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의 출처는 이 곳이다.

읽어낸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다.

위의 인용을 포함하여 작품 곳곳에 비사실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되는 것도 흠이다. 영신에게 할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에 필연성이 부족한 것을 포함해 대화의 많은 부분이 그렇다.

이 작품은 할아버지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평생에 걸친 봉사 활동을 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한 알 밀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육십 배 백 배의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작품이 동화라는 것과 또 학습자가 인정하지 못할 비사실적인 면이 곳곳에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주제의식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수록이 아니라 하겠다.

1.1.4. 순수한 사랑 - 「소나기」

「소나기」는 1953년에 발표된 황순원의 단편소설로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대단원에 실려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과 일상 언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학습하게’(지 88면) 되어 있다.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은 독자가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체험하게 된다’(지 88면)는 것이 이 단원의 설정 이유이다.

이런 설정 이유에 적합한 작품이 바로 「소나기」이다. 황순원 작품의, 특히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 문장이 극도로 간결하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아주 짧기도 하다. 이것은 그가 표현 대상을 독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언제나 최단거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산물¹⁰³⁾로, 우리에게 그의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밭을 뽑아왔다. 아직 밭이 덜 들어 있었다. 앞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리고는 이

103) 천이두, 「황순원의 <소나기>」, 이재선, 조동일, 『한국현대소설론』, 문장, 1981, 289면.

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물어 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쥌 깨문다.

소녀도 따라 했다.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아, 맵고 지려.”

하며 집어 던지고 만다.

“참, 맛 없어서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뺑개쳐 버렸다.(교 53-54면)¹⁰⁴⁾

이러한 노력은 표현 대상을 부각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세부 묘사를 외면하고 그 표현 대상이 반영하는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일면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주력한다. 말하자면 대상 그 자체보다 그것이 풍기는 단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¹⁰⁵⁾

소년이 고삐를 바투 잡아 쥐고 등을 끌어주는 채 훌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쟁충거리면서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교 56면)

언어적인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설정된 상황 자체도 아주 섬세한 서정시적이다. 몸이 약하여 시골로 요양하기 위하여 내려 온 서울 소녀와 시골 소년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순결하고 여린 감정의 교류는 이 작품에서 두드러진 어떤 주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거창한 무슨 액션이나 주제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향취 높은 시적 분위기에 접하게 되는 것이다.¹⁰⁶⁾

104) 이 인용부분은 제 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2학년 ‘문학의 언어’ 단원에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의 차이점을 비교하도록 하는 문제로 제시되었다.

105) 천이두, 앞의 글, 292면.

이런 시적 분위기는 상징적으로 사용된 소재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¹⁰⁷⁾ 하나는 작품의 첫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소녀가 소년에게 던진 조약돌로, 그것으로 인해 두 사람이 마음의 교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소녀는 무심히 던졌지만, 소년에게는 그 조약돌이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하는, 소녀를 생각하게 하는, 이르면 소녀의 분신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흙물이 든 소녀의 분홍 스웨터이다. 이 분홍 스웨터에 든 물은 소나기를 피하였다가 개울을 건널 때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너면서 든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두 사람 사이의 교류는 한결 고조되지만, 또 소녀의 병을 더치게 되기도 한다. 진흙물이 든 분홍 스웨터가 시적 상징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결말에 있어서 아버지를 통하여 자기가 죽거든 그 스웨터를 입혀서 묻어 달라고 했다는 소녀의 유언을 소년이 듣게 되는 때문에 이르러서이다. 소녀가 던져 보낸 하얀 조약돌이 소년에게 있어서 소녀를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된 것과 같이, 소년의 체온이 닿은 그 스웨터는 소녀에 있어서 어떤 영원의 징표로 간직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 상의 특징만큼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소년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커 간다는 것이다. 이남호¹⁰⁸⁾는 황순원의 문학이 성립하는 지점은 삶의 비극성에 있다고 하면서, 「소나기」 또한 이 비극성의 일단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라 한다. 그에 의하면 「소나기」는 한 시골 소년과 도회지 소녀의 순수한 감정적 교류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작품으로, 그 감정의 교류는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하여 사랑이라는 세속적 이름을 붙이면 오히려 불결해질 정도이다. 이 순수 감정은, 간접적으로는 어른들의 어리석은 행위(윤초시 손자의 사업 실패)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소녀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부딪쳐 금이 가는데, 소년은 그 깨어진 틈을 통하여 삶의 고통을 배워나가

106) 천이두, 위의 글, 293면.

107) 천이두, 위의 글, 293-294면.

108) 이남호, 「황순원 소설에서의 존재의 아름다움과 외로움」, 서종택, 정덕준, 『한국 현대소설 연구』, 새문사, 1990, 538면.

게 되는 것이다.

「소나기」는 말하자면 소년의 순수한 감정이 현실 혹은 운명의 잔혹함에 부딪쳐 금이 가는 이야기인데, 작가의 의도는 깨어진 틈을 통하여 어둠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년의 사랑과 순수함을 통하여 존재의 원래 모습이 지닌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⁹⁾

1.1.5. 잘못과 용서 - 「나비」

「나비」는 ‘문학과 독자’의 보충·심화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나비」는 이미 성인이 된 주인공이 어릴 적(8, 9세)의 나비 채집을 둘러싼 친구들과의 우정과 갈등을 회상의 형태로 서술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친구 하인리히의 방문을 받은 ‘나’가 ‘나’의 아이들이 나비 채집을 하는 나이가 되어 나도 새로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외부 액자이고, 나의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하인리히가 ‘나’가 보여준 나비 수집판을 자세히 보지 않은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말라며 어린 시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내부 액자이다. 그러니까 교과서 수록 부분의 화자 ‘나’는 하인리히인 것이다. 이 내부 액자 중 일부가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이다.

교과서 수록 이후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내부 액자의 화자인 나가 어두워지고서야 어머니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네가 에밀에게

109) 이남호, 위의 글, 539면. 이와 비슷한 견해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박헌호는 나도향의 문학의 의의를 언급하면서, 그의 문학이 사랑과 성욕을 매개로 하였다는 점 때문에 근대화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했던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 속에 은폐되어 있던, 해소되지 못한 욕망을 형상화한 작품들의 비조가 된다고 하면서, 「소나기」에서도 나도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 작품에는 개인의 욕망 구현이 억제된 사회가 펼쳐져 있고, 그러한 환경에 순응하면서도 개인의 심리적 자유공간을 훼손당하지 않으려는 주체의 가늠된 의지가 숨쉬고 있고, 인물의 내면은 환경에 버금가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욕망은 작품을 끌고 가는 핵심축이며, 빈곤은 근본조건이되 처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나기」가 향토적 배경 속에서 깊은 정서적 울림과 함께 종결되면서도 일상으로의 지향을 강하게 담고 있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박헌호, 앞의 글, 325면.

가서 그것을 직접 말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보상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아라.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¹¹⁰⁾는 충고를 듣고 용기를 내어 에밀을 찾아가 그 나비를 망가뜨린 것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지만 에밀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냉랭하고 경멸에 찬 눈초리로 화자를 주시할 뿐이었다. 화자의 나비를 전부 주겠다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다. 화자는 처음으로 한 번 결단난 일은 다시 손을 써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그 날 밤 잠들기 전에 몰래 식당에서 자신의 상자에 담겨 있는 나비를 하나 하나 꺼내 손가락으로 가루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

이 작품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짧은 생애와 아름다움의 무상함에 대한 표상으로, 동시에 단계적 성장이라는 변신에 대한 개방성의 표상으로 나비를 거의 모든 작품에 등장시키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 작품에서의 나비 수집도 어린 아이만이 느낄 수 있는 미지의 황홀감에 대한 욕구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희귀한 나비에 대한 호기심은 생애 최초로 도둑질을 시도하게 하고 그 도둑질의 결과 그는 도둑질을 했다는 감정보다 파손된 나비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에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소유물과 기쁨을, 다만 그것들의 전적인 가치를 재인식하기 위해 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급기야 그렇게 아끼던 자신의 나비를 한 마리 한 마리 없애버리며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정열의 극단에 이르렀던 자신에 대해 회의하게 되고 그 결과 나비에 대한 기쁨과는 무관해 지게 된다.¹¹¹⁾

인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아름다운 것에 대해 정열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가치란 소유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이 작품은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단점 없는 악덕을 지닌 친구의 담담한 태도에서 이미 한 번 엮지른 일은

110) 헤르만 헤세, 홍경호 옮김, 『나비』, 범우사, 1999, 61면.

111) 헤르만 헤세, 위의 책, 145-146면.

다시 되돌려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 터득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 과정’¹¹²⁾을 보여 주고 있다.

비판적이고 냉철한 에밀과 감정적이고 사색적인 주인공을 대조하여 심리적인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 낸 작품이나,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나비를 흠치고 싶은 욕망과 그래서 안 된다는 양심사이의 갈등’(지 281면)에 치중되어 있어 작품이 의미하는 바의 전부를 읽어 낼 수 없다. 최시한¹¹³⁾이 지적한 것처럼 이 작품은 죄와 벌, 욕망과 규범, 용서와 처벌 같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학생들이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좋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수록이 오히려 작품에 편견을 가지게 한다. 게다가 교과서에 제시된 ‘내가 만약 소설 속의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써 보자.’(교 242면)는 문제는 오히려 작품을 감상하는데 윤리적인 관점이 앞서게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한다.

1.2. 외적 가치지향의 주제

1.2.1. 존재의 가치 - 「강아지 똥」

「강아지 똥」은 ‘문학의 즐거움’ 단원의 보충·심화의 제재로, 어렵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읽어 나가는 중에 ‘모든 생명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담겨 있다’(지 85면)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존재, 때로 없느니만 못한 존재에 대한 관심에서 이 작품이 쓰여졌고, 작가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다. 작품을 소개하면서 제시되어 있는 문구에 보이는 것처럼 ‘나는 아무 데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고민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공부나 운동을 나보다 못

112) 한기상, 「국어 교육과 외국 문학의 수용」, 『국어교육연구』 1,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 연구소, 1994, 207면.

113) 최시한, 앞의 글, 184면.

한다고 친구를 알잡아 보거나 무시했던 학습자에게 존재가 가진 참다운 가치를 깨닫게 해서 희망을 전해주는 작품이다.

강아지 똥은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어쩌면 며칠 전에 제 가슴 속에 심은 별의 씨앗이 싹터 나온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니?”

물어 놓고 얼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건 하느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햇빛을 비추시기 때문이야.”

민들레는 예사로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역시 그럴 거야. 나하고야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금방 강아지 똥의 얼굴이 또 슬프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자 민들레 싹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하고는 강아지 똥을 쳐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

“내가 거름이 되어 줘야 한단다.”

강아지 똥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너의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 속으로 들어와야 해. 예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바로 너란 말이야.”

강아지 똥은 가슴이 울렁거리려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 과연 나는 별이 될 수 있구나!’

그러고는 벅차 오르는 기쁨에 그만 민들레 싹을 꼬옥 껴안아 녹여 버렸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어 별처럼 고운 꽃이 피어난다면 온몸을 녹여 네 살이 될게.”(교 49-50면)

강아지 똥의 마지막 말, “내가 거름이 되어 별처럼 고운 꽃이 피어난다면 온몸을 녹여 네 살이 될게.”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비로소 존재의 참다운 가치가 실현된다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노력과 희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2. 사회의 인식 - 『홍길동전』, 「옥상의 만들레꽃」

『홍길동전』은 ‘문학과 사회’라는 대단원 속의 소단원이다. 이 단원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작품 속에 나타난 현실의 모습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그 의미를 알아보는 데 가치가 있’(지 264면)기 때문에 설정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차적으로 ‘문학이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무언가 사회와 관련되는 이야기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 그려진 현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답을 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지 264면)된 것으로,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문학 감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지 264면)이라 한다.

『홍길동전』은 관점에 따라 사회혁명소설, 도술소설, 이상적 낭만소설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조선 시대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소설로서, 정치가 부패하고 적서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회 소설’(지 269면)로 보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천부적 인권을 제창하고, 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하여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으며 해외 진출과 이상국의 건설을 꿈꾸었다’(지 269면)고 한다. 즉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 작품을 사회 비판적 성격이 강한 사회 소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고자 하는 정신을 그 주제로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홍길동전』은 중등 교과 과정의 고전 소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계속 지적되어 온,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길동이 출가하는 과정의 일부에 불과¹¹⁴⁾해 사회소설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114) 박유정, 앞의 글, 15면.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홍길동전』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종 때에 홍재상을 아버지이고, 그 집 시비 춘섬을 어머니로 하여 길동이 태어난다.
2. 길동은 매우 영특하지만, 시비 소생이라 천대를 받는다.
3. 홍재상의 첩 초란이 관상녀와 짜고 특재라는 자객을 보내 길동을 죽이려 한다.
4. 길동이 도술로써 특재를 처치하고 집을 떠난다.
5. 산 속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 괴수가 되어 활빈당을 조직한다.
6. 팔도 수령들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다.
7. 나라에서 길동을 잡으려 하나, 길동의 도술을 당해내지 못한다.
8. 길동을 회유하기 위해 병조판서를 제수한다.
9. 길동이 궁궐에 가 왕을 알현하고, 벼 천 석을 요구하며 배에 싣고 섬나라인 울도국으로 간다.
10. 요괴를 퇴치하고 백소저와 조소저를 구해내고 그들과 결혼한다.
11. 울도국의 왕이 되어 이상적인 정치를 하며 다복한 세월을 보내다가 죽는다.

위의 11단계 중에서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2~3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홍길동이 도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작품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오히려 뒤쪽이라 하겠다. 전체 소설의 주제를 사회 제도가 가진 모순을 비판하는 것으로 본다면 교과서에 실린 말단 부분 중에서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사회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작품 후반부의 길동의 행동을 살펴보면,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동이 집을 떠나는데,

이것은 길동의 가출이 적서의 차별에서 불만을 갖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될 수는 있으나, 불만은 감정으로 등장한 것이지 비판 의식이나 개혁 의지로까지 발전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¹¹⁵⁾

즉, 교과서에 실린 부분만 읽고서는 독자가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한 천부적 인권을 제창하고, 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하여 사회 개혁과 해외 진출과 이상국의 건설이라는 주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홍길동전』이 장편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과서에 실린 부분만으로는 작품 그 자체의 의의를 살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 또한 분명하다.

『홍길동전』에 대한 연구는 작자의 문제에서부터 한자 표기 문제, 이본 문제, 형성 배경 문제, 비교문학적 문제, 주제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¹¹⁶⁾ 『홍길동전』 주제는 대체로 사회 부조리를 혁신하려는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적 측면과 단순한 개인의 욕망 충족 과정으로 설명하는 개인적 측면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홍길동전』의 주제를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 여러 견해 중에서 민영대¹¹⁷⁾는 이 작품의 주제를 인간 평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는 길동의 최초의 호부호형 할 수 없는 불만이 집안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출을 하는 것은 길동이 가진 문제의식이 대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길동의 울도국 건설은 당시 사회에서 불우하게 버림받고 지내던 무리를 모아서 자신들의 품은 한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천생이라도 능력에 따라서는 임금도 재상도 될 수 있는 국가를 조선 땅이 아닌 해외에 건설하여 처음부터 시도하려 했던 주제의식을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15) 박유정, 위의 글, 17면.

116) 대표적으로 김광순, 『한국고소설사』, 국학자료원, 2001.에 연구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17) 민영대, 「『홍길동전』의 주제연구」, 『국어국문학』 83, 국어국문학회, 1982.

민영대는 이런 주제의식을 나타냈던 작자가 지향한 바는 참다운 국가를 건설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국가의 기반은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땅에도 하루 속히 적서차별이 폐지되어 울분을 가슴에 안고 사회에 불평을 품고 사는 서류들이 평등하게 되어야 한다는 인간평등의 기본 정신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 한다.¹¹⁸⁾

정리하면, 표면적으로는 가부장적 질서 하의 가문, 대지주의 일종인 해인사, 함흥 감영이나 기타 탐관오리 등 한마디로 봉건지배체제 하에 속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서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되어야 한다는 인간평등의 기본 정신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홍길동전』이 정말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¹¹⁹⁾를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인정하여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이 의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석의 다양함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교사의 특성에 따라 지도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교사들의 지침서인 지도서가 이렇게 좁은 시각에서 작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옥상의 민들레꽃」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현대인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지 278면)로 ‘제재의 내용

118) 『홍길동전』을 사회 소설로 보는 데 있어 임형택은, 『홍길동전』의 저항성에 흔히 계급 타파나 사회 혁명과 같은 개념의 말이 붙여질 때, 그 개념에 연결되는 ‘근대적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길동이 내세운 자기 주장은 ‘인격의 실현’과 ‘활빈’으로 그 중 하나인 인격의 실현은 작품 끝까지 살펴 보아도 신분 제도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서열들의 인격 존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훨씬 열등한 처지로 광범하게 존재하던 전호농민이나 노비층의 인격의 실현이나 해방에 대해서는 구체화 된 것이 없고 단지 ‘활빈’만 제시된다. 이런 점에서 임형택은 『홍길동전』이 민중들의 생활과 감정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한계로 보고 있다.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정규복 외, 『한국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5, 343-350면.

119) 『홍길동전』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 중 하나로 주인공인 길동의 행동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각성에서 연유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문규, 앞의 책, 143면.

이 오늘날 학생들의 고민과 관련되고, 작품에 반영된 현실이 학생들의 실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접근'(지 278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감상을 통해 '인간적 가치를 상실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지 278면)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 작품은 '1980년 『실천문학』 제 1권에 발표된 작품으로, 현대인의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적 가치의 경시 풍조를 비판하여, 인간적 가치의 회복을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지 278-279면) 이 작품은 '나'의 시각으로 사건의 전개가 진술되는 1인칭 소설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화자가 사는 궁전아파트에 할머니 한 분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 그 아파트의 어른들이 표면적으로 자살의 원인과 대책 모색을 위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다. 후반부에는 '나'가 할머니가 자살하신 이유에 관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어 놓은 데에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대립을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지 289면) 현대라 지칭되는 사회의 모습과 관련지어 현대인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적 가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인간의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작가는 가족의 사랑, 예전의 사람 사는 모습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할머니들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는 며느리와 딸의 대답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할머니들은 손자를 업어서 기르고 싶어 하셨고, 바느질을 좋아해서 뭐든지 깎고 싶어 하셨고, 또 흙에다 무언가를 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고 싶어 하셨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과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인간이 존재 이유를 깨닫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반부에서부터 ‘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없어져 줬으면 할 때에 살고 싶지가 않아’(교 269면)지는 것이다. 사랑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절실한 끈인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죽고 싶었지만,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지겁 뿌리를 내리고, 눈물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교 269면)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다.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깨닫게 된 것이다.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전반부의 어른들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때문지 않은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인 ‘나’의 시각에서 전달되는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주목해야 할 것은, ‘나’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지하지 않은 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글쎄 셋이란다. 창피해 죽겠지 뭐니? 우리 동창이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 아니면 둘이지 셋씩 낳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구나.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단다. 어쩌다 막내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이 고생인지, 막내만 아니면 지금쯤 얼마나 홀가분하겠니? 막내만 아니면 남부러울 게 뭐가 있니?”

그 때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겐 나의 가족이 필요한데 나의 가족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 건 건디기 어려운 슬픔이었습니다.(교 266-267면)

이런 엄마의 말은 진정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해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지하지 않은 대화나 행동을 야기하는 사회는 적어도 어린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반부의 회의장의 대화에

서도 드러나는데, 회의장에서 궁전 아파트의 어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로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계산적이고 기회적이고, 물질이면 다 될 것 같은 대화가 유지되게 하는 것은 개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 거대화된 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무시되고, 인간이 창출해내는 가치만 중시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죽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은 ‘민들레꽃’이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민들레꽃은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준, 즉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해 준 소재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생명의 가치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력 즉, 관계에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암시를 주는 것이다.

1.2.3. 자연과 인간 - 「요람기」

「요람기」는 1967년에 발표된 오영수의 단편 소설이다. 오영수 작품의 인물들이 온정과 선의의 사람들이라는 점과 그들 대부분이 시골 사람이라는 점에서 김동리¹²⁰⁾는 오영수의 작품 세계를 온정과 선의의 세계라 명했다. 또 천이두¹²¹⁾는 오영수의 문학적 소재나 관심의 방향은 비교적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학적 개성만은 완고한 일관성을 지닌다고 했는데, 평명하고도 정확한 묘사를 통하여 주어진 표현대상을 부각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간직한 작가이고 언제나 그것을 따뜻하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지극히 정서적인 작가로, 따뜻한 묘사가, 긍정적·포용적인 관조자라 했다.

「요람기」는 이러한 오영수의 소설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

120) 장사선, 「오영수 소설의 작품세계」, 서종택, 정덕준, 『한국 현대소설 연구』, 새문사, 1990, 551면.

121) 『정통한국문학대계 작품해설집1』, 어문각, 1996, 207면.

요람기」는 그 내용만으로 본다면 수필과 비슷해 한 중심 되는 사건의 진행이 없고 인물간의 뚜렷한 갈등도 없으며 대부분이 계절 묘사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노는 모습, 들불놀이, 너구리잡기, 참외서리, 먹감기, 콩서리, 연 날리기 등을 보여 줄 뿐이다.

그러나 「요람기」에서는 사건의 전개가 자연물의 상징적 힘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특히 소설의 발단 부분과 대단원 부분에 자연물의 정경과 상징성을 동원하여, 사건의 전개와 자연물의 상징적 힘의 결합이 단순히 작품 배경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해 주고, 주제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요람기」에서 잡다한 이야기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구성이고, 이것은 또 물질적이고 도시적인 것을 배격하고 토속적인 인간상을 찾으려는 작가 의식에 의하여 소재들이 선택, 배열되었기 때문이다.¹²²⁾

이것은 또한 인간다운 것을 회복하고 인간의 면목을 탈환하고 인간 본연의 위치를 찾아서 확보하고 지키는 길을 선택하고 소박하며 낙천적인 건강한 인간이 살 수 있는 농촌적인 세계, 자연의 세계, 믿음직한 지나간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의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문명의 오염, 도시의 차가움, 현실의 기계적 생활의 되풀이에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자연과 건강함과 낙천성과 농촌적 소박함만이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¹²³⁾

이런 점들로 인해 오히려 오영수의 작품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서 현재의 우리에게 다가선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가 추구한 따뜻한 인간애, 귀향 의식, 원시 공동체나 유토피아 의식, 생명에 대한 간절한 지향성은 우리의 현실

122) 작가가 「요람기」와 같은 서정적인 소설만을 쓰고 리얼리즘 소설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부의 연구자들은 불평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재인에 의하면, 오영수 소설의 서정성이 그의 한계가 아니라 그가 채택한 방식일 뿐이고, 현실이란 것은 서사적 구조에만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정적 구조에도 얼마든지 담길 수 있다. 그가 서정성을 서사성보다 중요시했다면, 그것은 작가가 자신의 필연적인 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지 리얼리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재인, 「21세기를 향한 오영수 소설 연구의 가능성」, 임영천, 『한국현대문학과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2000, 142면.

123) 『정통한국문학대계 작품해설집 1』, 어문각, 209-210면.

에 새롭게 자리 매김 되고 새로운 전망을 내려줄 수도 있¹²⁴⁾는 것이다. 작가의 문제의식은 한국이 서구의 물질문명에 현혹됨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자연과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한탄했다. 그것은 문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폐해에 대한 경종으로, 그런 면에서 오영수는 자연 친화적인 범휴머니즘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하겠다. 50, 60년대의 문명이 90년대의 문명과 비교해보면 보잘 것 없는 것일지라도 그는 그 때부터 이미 문명의 폐해를 간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자연이야말로 하나의 구원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문명이라는 것도 자연을 철저히 탈주술화시키는 그러한 이성의 힘만으로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문명은 자연에 대한 사랑, 전통정신에 대한 기반 위에서 서야 한다고 믿은 것이다. 이른바 휴머니즘 소설로서, 생명의식을 절묘하게 담아낸 생태소설¹²⁵⁾로서도 충분히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것이다.¹²⁶⁾

1.2.4. 민족의 수난과 고통 - 「흰 종이 수염」, 「숨쉬는 영정」

「흰 종이 수염」이 속해 있는 대단원은 ‘문학과 독자’이다. 이 단원의 설정 이유는 ‘독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현실 상황과 거리가 있는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작품 속에 드러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대해

124) 이재인, 앞의 글, 142면.

125) 1950년대 이후 자연을 더 이상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시들이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시작품들은 자연파괴의 현상을 인간의 생존위기와 결부시켜 현실적 사회문제로 쟁점화시킨 새로운 유형의 ‘자연시’였다.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현상을 소재로 수용하기 시작한 이러한 시의 유형을 ‘생태시’ 또는 ‘생태학적 시’라 한다. 송용구, 『생태시와 저항의식』, 다운샘, 2001, 51-52면. 이후에 환경문제, 생태문제가 중요한 시대적 의제로 떠오르고 인류의 초미의 관심사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엽부터이다. 이 무렵부터 분학적 담론에서, 특히 시적 담론에서 생태적 상상력은 새로운 창조력과 방법론을 열어 보이면서, 여러 수준의 논의의 중심부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김영석, 『도와 생태적 상상력』, 국학자료원, 2000, 11면.

126) 이재인, 앞의 글, 141-153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작품 이해와 감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지 254면)에서이다.

「흰 종이 수염」은 '6·25 전쟁과 관련된 1950년대의 전후 소설로서 전쟁이 가져온 비참한 현실 상황과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린 소설이다.'(지 254면) '당대 사회 현실과 가난한 삶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에 대처하는 주인공의 입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작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가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지 258-259면)하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 동길이가 겪는 체험을 민족 수난의 역사적 상황과 밀착시켜 그려냄으로써 그로 인한 삶의 황폐화를 숨김없이 드러내고'(지 259면) 있는 작품으로, '6·25 전쟁 직후의 빈곤하고 참담했던 삶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흰 종이 수염」은 가난한 시골 사람들 이야기로, 무력하고 어수룩한 시골 목수가 6·25 전쟁통에 노무자로 동원되어 나가 팔 하나를 잃고 돌아오게 되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섬짓한 놀라움과 비통감이 절실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초등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들 동길이의 의기 저상과 거기에 대조되는 동길이 동무들의 짓궂은 조롱은 희생자가 감당해 내야 할 냉혹한 세태를 한 층 돋보이게 한다. 동길이의 밀린 사친회비와 가족의 세 끼 밥을 위해 얼굴에 흰 종이 수염을 붙이고 극장 광고판을 떼고 다니는 일을 하는 동길이 아버지를 조롱하던 소년 창식이가 동길이에겐 매를 맞고 있을 때의 장면은 바로 전쟁 수난자의 슬픈 몸부림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비명 소리와 함께 길바닥에 나가떨어진 것은 물론 창식이였다. 개구리처럼 뻘었다. 그러나 동길이는 그 위에 덮쳐서 사정없이 마구 깔고 문뎀다.

“아이크, 아야야야야……, 캬!”

창식의 얼굴은 떡이 되는 판이었다. 아이들은 덩달아서 ‘와와와와’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 댔다.

동길이 아버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손에서 메가폰을 떨어뜨렸다.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창식은 이제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옥! 옥!’ 넘어가고 있었다.

“와 이카노? 와 이카노? 잉! 와 이캐?”

동길이가 아버지는 후닥닥 광고판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하나 남은 손을 대고 내저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턱에 붙었던 수염의 실밥이 떨어져서 흰 종이수염이 가슴 앞에 매달려 너풀너풀 춤을 춘다.

“이 놈으 자식이 미쳤나, 와 이카노? 와 이캐 잉?”(교 212면)

민족 수난사 안에서 희생된 자의 분노를 터뜨리는 역할은 어린 소년 동길에게 돌려지고, 희생자 자신인 팔 잃은 목수는 착한 아버지 입장을 지킨다. 전쟁의 결과로 동길이네 가족 전원이 역사의 비극을 앓으며 몸부림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한 가족에게서 끝나는 몸부림이 아니고 한국의 사회 상황 안에서 보편성을 떠는 아픔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¹²⁷⁾

그러나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한 공포의 상황에서도 훈훈한 정이 있고 피가 통하는 인정이 있는 소박한 사람들의 생활세계와 순박한 생활감정이다.¹²⁸⁾ 작가는 독자들이 연민의 감정을 갖도록 동길이가 아버지라는 인물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영락한 인간조차도 언젠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끔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도 아니고 막연한 낙관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생활의 새로운 상승의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유복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작가는 매우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다루고 있는 하근찬의 작품은 특이하다. 『흰 종이 수염』이나 『수난시대』처럼 전쟁이 인간의 삶과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구체적

127) 구중서, 「하근찬의 문학세계」, 하근찬, 『흰 종이수염』, 삼중당, 1977, 353-355면.

128) 전영태, 「하근찬·강용준의 작품 세계」, 『정통한국문학 대계 작품 해설집 1』, 어문각, 1996, 263-264면.

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전쟁을 육체적 손상과 관련해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손상된 육체성의 회복은 전후 소설이 보여 준 정신과 육체의 분리를 극복함으로써 전쟁 일반으로 환원되지 않는 한국전쟁만의 실감을 재현해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개인 대 전쟁이나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가족 혹은 마을 공동체와 전쟁의 대결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전쟁이 개인이나 국가 이전에 가족/마을 공동체의 문제인 것은 한국 사회 특유의 공동체적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흰 종이수염」과 「수난이대」의 아버지들의 의연하고도 낙관적인 대처 역시 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¹²⁹⁾ 하겠다.

아울러 어린이의 시각에서 전쟁을 다루고 있고 또 학습자 또래와 거리가 멀지 않은 고민, 즉 ‘아버지’에 대한 고민도 이 작품이 갖는 특이함 중의 하나다. 전쟁 중에 함께 있지 못했던 아버지가 한 팔을 잃고 돌아와 자신의 신체적 결함은 아랑곳 않고 가족의 생계와 아들의 학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일을 마다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며, 동길이는 전쟁이 안겨준 부당함을 인식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에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작품에는 아직까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만 나오지만, 동길이는 이 과정을 통해 분명히 이제까지와는 다른 세상과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한 이 작품을 읽게 되는 학습자가 간접 경험함으로써 동길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숨쉬는 영정」 또한 「흰 종이 수염」과 마찬가지로 ‘문학과 독자’라는 단원에 실린 작품이다. 「숨쉬는 영정」은 ‘6·25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 가족의

129) 하정일, 위의 글, 322-336면. 이 글의 필자는 하근찬 문학이 보여주는 저항이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저항에 불과하다는 점, 민중적 잠재력을 역사의 실천적 힘으로 밀고 나가지 못한 점, 한국전쟁의 지정학적 연관, 즉 외세 종속의 핵심에 육박해 들어가지 못한 점 등은 한계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시공간성을 복원하려 한 하근찬의 노력은 분단 극복의 문학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을 이룬다고 보고 있다.

아픔을 그리고 있는 작품’(지 255면)으로 ‘전쟁이 끝난 지 반 세기가 되어 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산의 아픔을 형과 아우의 엇갈린 만남을 통하여 극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지 272면) 그래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이산 가족의 아픔에 대해 간접 체험하고, 작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지 272면)의도되고 있다.

「숨쉬는 영정」은 앞 절반 가량이 생략되고 뒤 절반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전쟁 중에 월남을 하던 두 형제가 헤어져 생사를 모르고 지내게 되는데, 동생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형을 찾았을 때는 형이 성공하지 못해서 동생을 만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만나지 못하다가 결국 죽고서야 동생을 만나게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동생 재규와 형 태규의 시점에서, 그리고 현재와 가까운 과거와 먼 과거가 서로 교차되면서 진행된다. 이런 구성은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 헤어져 살고 있는 애뜻함을 보여 주기에 가족의 당연한 만남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형과 동생의 만남이 형의 자격지심과 만남을 갖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것 또한 긴장감과 더불어 불안, 초조를 느끼도록 한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 작품이 감동을 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산 가족의 슬픔은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민족적 아픔이다. 이 소설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상봉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슬픔과 한을 풀어내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이산 가족 상봉은 이 소설의 결말처럼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태규의 죽음으로 인해 형제 상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이 시대가 겪고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한 반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숨쉬는 영정」은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크나큰 문제 중의 하나를 문학적 체험으로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감동을 주는 것이다.’(지 275면)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크게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북에 두고

은 ‘고향’과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선조가 살던 마을과 집’을, 즉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떠나오지 못하였고, 그런 어머니가 계시기에 고향은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동경의 그 곳, 낙원인 것이다. 이 역사와 낙원의 상실이 한(限)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상실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한인 것이다.

1.2.5. 전통문화의 계승 - 「바람을 파는 소년」

「바람을 파는 소년」은 1972년에 『새교실』에 발표된 작품으로 교과서에 실린 것은 원작을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¹³⁰⁾ 1970년 작자의 고향 해리의 5일장을 배경으로 쓴 이 작품은, 전통적인 대나무 부채가 새로 나온 나일론 부채에 밀려나는 전통 문화에 대한 상실의 아픔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대나무 부채에 담겨 있는 우리 조상들의 혼을 문명의 이기 속으로 그냥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작가의 안타까운 마음이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남수에게로 전달되고 있는¹³¹⁾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미 1983년에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있는 작품으로, 제 7차 교육 과정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다시 수록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삶과 갈등’의 보충·심화에 수록된 ‘갈등이 부각된 짧은 글’(지 217면)로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주인공 남수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활동’(지 217면)을 하게 되어 있다.

이야기 전개에 따라 주인공 남수의 마음 상태는 세 번 바뀐다. 할아버지와

130) 원작은 분량이 교과서에 실린 분량의 1.5배 가량 되고, ‘남수’는 ‘돌쇠’로 되어 있고, 또 할아버지와 남수가 사는 집에 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과 집에서 장으로 가는 시골길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부분과 할아버지가 부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바람을 파는 소년」, 『밤에 온 눈사람』, 창작과 비평사, 1994, 160-171면.

131) 김명희, 「이준연 작품의 토속세계 연구」, 『전주대교육논총』 11, 1996, 199면.

함께 시장으로 향할 때는 ‘부채가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지 217면)있다. 그런데 장에 도착해 색색의 값싼 나일론 부채를 들고 나온 나일론 부채 장수가 ‘손짓 발짓까지 하면서 신나게 떠드는’(교 194면) 소리를 듣고 또 나일론 부채가 순식간에 몇 자루씩 팔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남수는 ‘대나무 부채가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고 화가 나’(지 217면)게 된다. 할아버지께서 막걸리라도 한 사발 마시고 온다고 가신 뒤 ‘남수는 나일론 부채장수와 맞서 보기라도 할 것처럼 용기를 내어 소리’(교 196면)치게 된다. 그리고 대나무 부채를 칭찬하는 할아버지 손님들이 다녀간 뒤 남수는 ‘대나무 부채에 자부심을 느끼고 신이 나’(지 217면)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 남수는 ‘나일론 부채가 잘 팔려 나갈 때에는 할아버지의 대나무 부채가 초라하고 볼품이 없이 보였으나 할아버지 손님들의 칭찬을 듣고 난 후에는 대나무 부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가지게’(지 218면) 된 것이다.

남수의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은 할아버지에 대한 긍지의 회복으로, 이것은 전통을 이어주려는 앞 세대와 전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후세대 간의 믿음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남수를 통해 그 맥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과거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오느니 우리의 있게 한 민족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 작품이 가지는 의의는 어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삶의 뿌리를 후세대들로 하여금 지키고 되찾도록 하려는 안간힘¹³²⁾인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작가 의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의 작품이 이미 사그라지고 있는 토속적인 삶¹³³⁾을 지키려는 한스러운 안간힘으로 꼭 차 있는 것을 보면 알

132) 최지훈, 「동화작가 이준연론」, 『아동문학평론』 60, 1991, 70면.

133) 김명희에 의하면, 그의 토속적인 세계에의 관심은 김동리의 영향이라 한다. 작가는 1959년 중앙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3학년 대, 서라벌 예대 문예 창작과로 편입하여 그의 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김동리 선생과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작가와의 대화에서 ‘그 분이 살아 계실 때에 친구와 함께 선생을 찾아뵈었고, 그 때마다 선생의 문학 사상에 폭 빠진 적이 많았다’고 했다 한다. 김명희, 앞의 글, 185-186면.

수 있다.¹³⁴⁾ 그 안간힘이 동화로써 이루어졌다 함은, 그 ‘지키기’에 대하여 어른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동화를 통하여 그의 이러한 신념을 어린이가 해내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작가는 손자와의 탄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할아버지’라는 존재의 의의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는 할아버지를 가치관의 중심에 놓아 우리의 것을 지켜내려는 의지를 보인다.¹³⁵⁾ 이것은 작품의 인물들을 할아버지의 삶의 터전인 ‘고향’으로 회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고향이 물질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면, 분명 이 회귀는 단순히 우리들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본래의 모습, 즉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메시지¹³⁶⁾인 것이다. 또한 여기에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전통 문화의 계승에 있어서 후세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통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게끔 노력하는 기성세대의 중요성을 할아버지를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소설의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34) 최지훈, 앞의 글, 71면.

135) 김명희, 앞의 글, 200면.

136) 그는 고향을 단순히 현실적 공간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양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고향의 철학적 개념은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인간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명희, 앞의 글, 199면.

대 단 원	작 품	주 제
문학의 즐거움	이해의 선물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심성
	강아지 똥	존재가 가진 참다운 가치
삶과 갈등	소설 동의보감	전인적인 삶의 지향
	바람을 파는 소년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병어리 삼룡이	삼룡이의 인간적 자각
문학과 사회	홍길동전	인간 평등
	옥상의 민들레꽃	인간적 가치의 회복
문학의 아름다움	소나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요람기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리움
문학과 독자	흰 종이 수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
	숨쉬는 영정	이산가족의 아픔
	우산장수 할아버지	봉사하는 삶의 아름다움
	나비	냉정함이 깃뻛은 인간적 진실

<표 5> 교과서 소설 작품의 주제 목록

2. 가치관의 유형별로 살펴 본 주제의 가치지향

2.1. 로키치의 분류

작품이 지향하는 가치는 한 마디로 인간적 가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작품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앞장에서 제시된 로키치의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분류에 따라 살펴본 결과 13편 중에서 2편만 수단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11편은 모두 궁극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수단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 2편은 공교롭게 모두 외국 소설로 ‘마음이 넓은’에 해당하는 도덕적 가치를 보여주는 「이해의 선물」과 ‘정직한’에 해당하는 도덕적 가치를 보여주는 「나비」가 그것이다.

궁극적 가치에 해당하는 작품 11편 중에서도 8편은 개인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3편은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보여 주는 작품은 『홍길동전』과 「바람을 하는 소년」, 「옥상의 민들레꽃」으로 ‘평등’과 전통 문화와 사회에 대한 ‘성숙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대부분이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는 개인적 가치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은 개개인을 국가나 사회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 가치		수단적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도덕적 가치	능력적 가치
작 품	「강아지 똥」 『소설 동의보감』 「병어리 삼룡이」 「소나기」 「요람기」 「흰 종이 수염」 「숨쉬는 영정」 「우산장수 할아버지」	「바람을 파는 소년」 『홍길동전』 「옥상의 민들레꽃」	「이해의 선물」 「나비」	

<표 6> 로키치(Rokeach)의 분류에 따른 가치지향

이러한 양상은 다분히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수단적 가치보다 궁극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에 처한 상황보다는 미래의 상황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현실적이기보다 이상적이라 할 수 있고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 체계와 유리될 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2.2. 정범모의 분류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정범모의 분류에 따라 작품의 가치관을 다음의 표로 제시할 수 있다.

분 류 작 품	자 연		인 간			시 간			인 생			사 회						
	혼돈·불변관(4)	질서·변화관(9)	예속관(4)	조화관(2)	주체관(9)	과거지향(4)	현재지향(5)	미래지향(4)	쾌락관(3)	수양관(6)	활동관(4)	종적관계관(4)	횡적관계관(3)	개인주의(6)	귀속주의(2)	업적주의(6)	특정주의(8)	보편주의(5)
이해의 선물		○			○		○		○					○			○	
강아지 똥		○			○		○			○			○			○		○
소설 동의보감		○			○	○					○			○		○	○	
바람을 파는소년	○			○		○					○	○			○		○	
병어리 삼룡이		○			○		○			○				○		○	○	
홍길동전		○			○			○		○			○			○		○
옥상의 민들레꽃		○			○			○		○			○					○
소나기	○			○			○		○					○			○	
요람기		○			○	○			○			○			○		○	
흰 종이수염		○			○			○			○	○					○	
숨쉬는영정		○			○	○				○		○				○		○
우산장수 할아버지	○			○			○				○			○		○		○
나비	○			○				○		○				○			○	

<표 7> 정범모의 분류에 따른 가치지향

정범모에 의하면 가치관의 양상과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개인의 행로와 사회의 행로는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¹³⁷⁾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137) 정범모, 앞의 책, 33면.

인간이 실존하고 사회가 존속하는 한, 인간이 반드시 당면하게 되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어떤 방향의 대답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의 갈래가 결정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환경인 자연과 시간, 그리고 그 속의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표 7>에서 의미가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인간관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13편 중에서 주체관을 보여주는 작품이 7편에 달해 반을 넘는 양상을 보인다. 정범모가 말하는 주체관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말하는 것인데, 그에 의하면 자연에 대한 질서관과 변화관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에 따라 인간 주체관이 형성된다고 한다. 즉 인간은 자연과 역사 밑에서 예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서 주체자답게 능동적으로 이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인간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며 역사의 주체 또한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¹³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관점은 달라지겠지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 어느 한 쪽의 우위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어떠한 관계에 있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더 많아져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현대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못지 않게 인간과 물질의 관계도 중요하다. 김태길은 근래 도입된 서구적 가치 풍토의 영향을 받고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의 생활태도 가운데서 특히 주목할 것으로 금전만능의 풍조를 들고 있다.¹³⁹⁾ 금전과 물질 또는 권력이 인간 또는 인간적 가치의 우위를 강조하는 데 있어 배척되어야 할 것은 물론 아니다. 인간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질 생활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만큼, 인간의 회복을 염원하는 것이 한갓 공론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의

138) 정범모, 위의 책, 44면.

139) 김태길, 앞의 글, 168면.

중요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금전 내지 물질은 인간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적 가치이며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교과서의 작품 중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데 「옥상의 민들레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시간관을 살펴보자. 교과서 수록 작품들은 큰 차이 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골고루 지향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이 더 많다. 과거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도 단순히 감정적 차원의 과거 회귀가 아닌 작품으로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소설 동의보감』, 「바람을 파는 소년」, 「요람기」, 「숨쉬는 영정」이 그것으로, 특히 「요람기」와 「숨쉬는 영정」은 전쟁 이전의, 가족이 함께 지냈던 평화로운 상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미래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은 오늘의 자그마한 만족보다는 그것을 참음으로써 내일의 보다 큰 만족을 얻는다는 심리적 기제¹⁴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현재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이 6편으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데, 현재지향에서는 모든 보람 있는 것, 좋은 것, 즐거운 것은 지금에 있는 것이며 오늘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 즐거움과 보람과 의의는 오늘에서 찾아야 하며, 과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다음과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즐거운 것, 지금 화가 나는 것, 지금 이익된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지향의 사람들은 극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문화는 극히 다정다감한 문화¹⁴¹⁾라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인생관을 살펴보면, 수양관이 절반으로 우세함을 보인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인생관이 수양관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인생관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정범모는 활동관이 발전의 원동력으로 꼭 필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양관에서 활동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발전한 서양의 경우 17, 8세기에 있어서 그들

140) 정범모, 앞의 책, 50면.

141) 정범모, 위의 책, 48면.

의 대표적인 생활 유형은 역시 수양관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19, 20 세기에 들어와서는 각종 발달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해서 활동관이 우세한 위치에 이르렀다가, 요즈음에 와서 특히 2차 대전 이후에는 점차로 일면 향락적인 개인행동이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번져 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 수양관을 중심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는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¹⁴²⁾ 발전에 있어 서양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양관과 활동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종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사회관을 살펴보자. 사회관에서도 인생관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이 보인다. 보편주의보다 특정주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작품이 더 많은 것이 그것을 보여 준다. 전통 사회에서는 특정주의가 생길 만한,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만한 조건들이 있었다. 우리 전통 사회의 특정주의는 가족주의가 대표적인 형태로, 한 동네가 대체로 같은 가족·친척·씨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다른 동네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섭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현대 사회에 접근할수록 급격히 변하면서 보편주의가 지향가치가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천과 더불어 보편주의의 탄생과 보급에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곁들여 진다. 즉 궁극에 가서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개인의 인격적 가치 그 자체며, 이 점에서는 만인이 공통 평등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규율과 도덕은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편주의의 근거에는 인권사상이 놓여 있고 그 인권사상과 사회정의의 사상은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특정주의와 보편주의의 관계를 포함해 사회관이 보여주는 특이한 양상은, 특정주의가 보편주의보다 우세하기는 하지만 귀속주의보다 업적주의가 더 우세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주의와 귀속주의가 짝을 이루고, 그것이 현

142) 정범모, 위의 책, 59면.

대로 오면서 보편주의와 업적주의가 짝을 이루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교과서 수록 작품의 가치지향은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 종적 관계가 횡적 관계보다 더 우세하지만 개인주의 보다 더 우세하지는 않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을 임희섭¹⁴³⁾은 우리만의 기형적인 개인주의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특정주의인 가족주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상당히 약화되고 그 대신 개인주의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아직도 한국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동시에 현대 한국인들의 개인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발견되는 개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관인 집합주의 즉 특정주의에서 현대적 가치관인 개인주의로의 가치 변화가 체계적인 이념적 변화의 과정을 선행시킨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가치의 왜곡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를 레비(Levy)는 ‘결격형 개인주의’라 하는데, 한국 사회의 가치체계 속에는 전통적으로 집합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많은 현대의 한국인들은 완전히 제도화된 개인주의의 이상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렇다고 전통적 집합주의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없는 변화된 사회구조적 환경 속에서 가치의 혼란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결격형 개인주의를 적응기체로서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개인주의가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나의 인격과 권리에 못지 않게 존중하는 개인주의의 이상을 결여한 채로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보호하려는 이기적 개인주의로 왜곡된 것은 이와 같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풀이되는 것이다.

143) 임희섭, 『사회변동과 가치관』, 정음사, 1986, 65-74면.

2.3. 클라크혼의 분류

정범모의 분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인간의 본성관과 인간 활동관을 클라크혼의 분류에서 살펴보자.

	인간본성관					인간관계관		시 간 관			인간 대 자연관			인간활동관		
	악	혼합 (1)	선 (12)	중적 (4)	횡적 (5)	개인 주의 적 (4)	과거 (5)	현재 (4)	미래 (4)	자연 순응 (6)	자연 조화 (2)	자연 극복 (5)	존재 지향 (3)	생성 지향 (7)	행동 지향 (3)	
이해의 선물			○			○		○		○			○			
강아지 똥		○			○			○		○			○			
소설 동의보감			○	○			○					○			○	
바람을 파는소년			○	○			○			○					○	
병어리 삼룡이			○			○			○			○	○			
홍길동전			○		○				○			○			○	
옥상의 민들레꽃			○			○	○				○			○		
소나기			○		○			○		○				○		
요람기			○		○		○				○			○		
흰 종이 수염			○	○					○			○		○		
숨쉬는 영정			○	○			○			○				○		
우산장수 할아버지			○		○			○				○		○		
나비			○			○			○	○				○		

<표 8> 클라크혼(Kluckhohn)의 분류에 따른 가치지향

<표 8>을 보면 교과서의 소설 작품은 인간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하는 쪽은 맹자나 루소의 성선설과 같이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도 본성이 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¹⁴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병어리 삼룡이」의 삼룡이와 「나비」의 에밀에 대해서는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룡이가 선택한 결말의 방화는 그의 본성에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신체적 한계와 상황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삼룡이는 병어리이고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오해가 생겨도 변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비」의 에밀도 그 본성이 악하다고는 볼 수 없다. 에밀이 자신이 아끼던 나비 표본을 밟고 있던 친구가 못쓰게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상황과 타인의 진심을 읽어내기에는 어렸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에밀이 악해서라기보다는 판단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인간 활동관에서는 생성지향이 절반을 넘는다. 생성 지향은 사색과 초연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제약하고 전인으로서의 조화적 자기 발전과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며 인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행위보다 자질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통합된 전체로서 자아의 모든 측면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류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관점이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 본 정범모의 분류 중에서 인생의 측면에서 수양관의 관점을 보이는 작품이 6편으로 절반이었다는 점과 같은 결과로 인간 활동관에서 교과서 소설 작품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전통적 관점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존재지향은 인간의 내재적 욕구나 활동의 만족과 인간에게 주어진 소질의 자발적 표현을 중시하며 자기 발전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인간이나 사물에 대한 판단기준은 현재적인 것에 두는 관점¹⁴⁵⁾을

144) 박승만, 앞의 글, 16면.

145) 박승만, 위의 글, 19면.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이해의 선물」, 「강아지 똥」, 「벙어리 삼룡이」이다. 행동 지향은 외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성과, 성취를 중시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능률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타인에 대한 판단을 성과 정도나 성취 가능성에 따라 내리는 특성을 갖는 관점¹⁴⁶⁾을 말한다. 『소설 동의보감』, 「바람을 파는 소년」, 『홍길동전』이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146) 박승만, 위의 글, 20면.

IV. 가치지향의 한계 및 제언

앞의 고찰을 통해 교과서의 소설 작품의 주제에 드러난 가치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소설이 학습자가 배우는 소설의 다가 아니라는 점과 소설이 보여주지 못한 중요한 가치는 교과서의 다른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 작품에서 제시되기도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전반적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1. 관념의 체계와 행동의 체계의 유리

가치는 관념으로서의 체계와 행동으로서의 체계를 아울러 내포하고 있는 개념임을 앞에서 살폈다. 그러므로 이 두 요소가 하나하나 따로 떨어질 때보다 하나로 일치할 때 그 의미가 더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소설 작품은 두 체계 사이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태길¹⁴⁷⁾은 한국인의 생활 태도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1)금전만능의 풍조 (2)관능적 쾌락에 대한 우선적 추구 (3)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적 행동 경향을 들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예로, 실제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직업을 갖는 가장 큰 이유로 개인의 적성이나 근무 조건보다 보수나 급여를 우선시 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74.3%에 달했다¹⁴⁸⁾는 통계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김태길의 지적을 부인할 수 없을

147) 김태길, 앞의 글, 168-172면.

148) 공보처, 앞의 책, 57면.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소설에는 물질에 관한 가치가 담긴 작품은 없다. 돈의 가치에 관련된 작품인 「이해의 선물」이 있긴 하지만 돈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 가치인 인간의 순수함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관념이나 언어의 세계에서는 금전 내지 물질을 가벼이 여기는 기풍을 견지하고 정신적 가치의 우위를 강조하는 버릇이 있으나 실제적 행동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동기의 구실을 하는 것은 금전 또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다. 이것은 적지 않게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금전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은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이 최고의 가치처럼 추구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문화 전체의 성격이 상품시장의 색채를 띠게 되기 쉬우므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금전과 권력과 관능의 쾌락은 모두 경쟁성이 강한 가치들로 이것들은 이 사회를 치열한 경쟁 사회로 만들기도 한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는 이기주의의 경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행동 체계로서의 가치관은 관념의 체계로서의 가치관이 지키고 있던 전통적 체계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다. 교과서의 소설 작품이 여전히 관념 체계로서의 가치관만을 중시하고 있고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이다.

이렇게 관념의 체계로서의 가치가 행동의 체계로서의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관계로 제시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 관념의 체계로서의 가치가 단지 제시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도 문제로 들 수 있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지난 교육 과정 시기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13편의 소설 작품이 실려 있다. 이렇게 작품의 수가 많아진 만큼 그 체재와 주제도 다양해졌다.

주 제 와 작 품	지향가치
·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 - 「이해의 선물」 · 인간적 각성 - 「병어리 삼룡이」 · 전인적인 삶의 지향 - 『소설 동의보감』, 「우산장수 할아버지」 · 순수한 사랑 - 「소나기」 · 잘못과 용서 - 「나비」	내적가치 (존재지향)
· 존재의 가치 - 「강아지 똥」 · 사회의 인식 └ 고전(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 - 『홍길동전』 └ 현대(산업화로 인한 비인간화 고발) - 「옥상의 민들레꽃」 · 자연과 인간 - 「요람기」 · 민족의 수난과 고통 - 「흰 종이 수염」, 「숨쉬는 영정」 · 전통문화의 계승 - 「바람을 파는 소년」	외적가치 (관계지향)

<표 9> 주제의 인간적 가치의 구분

<표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적 가치’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그 양상이 다양해졌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지난 시기까지 비중 있게 다루었던 ‘민족의 수난’, ‘남녀간의 사랑’이 여전히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있다. ‘민족의 수난’을 다룬 「흰 종이 수염」의 경우는 전쟁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을 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두고 있어 전쟁의 회복이 개인이나 국가 이전에 가족 혹은 마을 공동체임의 문제임을 한국 사회 특유의 공동체적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보여 주고 있다. 또 「숨쉬는 영정」의 경우도 민족의 수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임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재주의를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내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 심성의 아름다움’(「이해의 선물」), ‘전인적 삶의 지향’(『소설 동의보감』, 「우산장수 할아버지」), ‘인간적 각성’(「병어리 삼룡이」) ‘사랑’(「소나기」), ‘추억과 그리움’(「요람기

」), ‘잘못과 용서’(『나비』)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간이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가치가 가치체계의 정상을 다시 차지해야¹⁴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점에서 이러한 인간적 가치를 단순히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양상이 인격적인가 비인격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간관계가 점점 더 비인격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그 관계는 더욱 더 법률 체계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에는 가족과 결혼의 문제조차 더 이상 인간적 애정의 보루로 당연시되지 않는데, 혼인신고서 작성, 이혼소송 제기, 부동산 처분, 자녀 보호 문제 해결, 비지테이션 라이트(Visitation Right, 이혼했을 때 한쪽 어버이에게 있는 자식을 만나러 가는 권리)의 해결, 자녀 양육 비 결정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법에 의존한다. 과거에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법률 행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건전한 인간의 존재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한 정서적 영역을 남겨두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적 가치의 인격적인 면의 제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의 「소나기」가 인간적 가치를 다루면서 정서적인 영역을 강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와 연령과 배경에 있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문제다.

둘째로 인간적 가치의 제시에 있어서 현실을 관념의 체계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인간적 가치란 행동과 실천에 있어서 그것을 최고의 주가치로서 추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그 본래의 자리를 회복했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옥상의 민들레꽃」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간적 가치는 값지다.

“그 분은 손자를 업어서 기르고 싶어 하셨어요.”

149) 김태길, 위의 글, 187면.

“그건 안 되죠. 안짱다리가 되니까.”

“그 분은 바느질을 좋아해서 뭐든지 김고 싶어하셨어요. 특히 버선을 김고 하셨죠.”

“점점 더 어렵군요. 요새 버선이라니? 더군다나 기워서 신는 버선을 어디 가서 구하겠소?”

“그 분은 또 흙에다 뭍 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자란 분이거든요.”

“참으로, 참으로 어려운 분이셨군요.”

교수님이 낙담을 합니다. 이 때 젊은 아저씨가 또 나섭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가셨군요.”

“저희 어머니는 이 도시가 고향인데도 베란다에서 떨어지셨어요.”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의 딸이 젊은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이 시골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겁니다. 도시에서도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노인들은 예전의 사람 사는 모습이 그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아무리 효자라도 세월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젊은 아저씨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교 263면)

이 부분은 할머니들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며느리와 딸의 대답이다. 여기서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손자를 사랑으로 기르고 자연과 함께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가족과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인간이 존재 이유를 깨닫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다.

셋째로, 인간적 가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자아 실현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볼프강 브레징카¹⁵⁰⁾는 자신의 연구에서 1965년에서

1975년 사이 독일에서는 자아 개발 가치가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가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다.

(1)이상주의적 사회비판의 가치 : 권위로부터의 해방, 동등한 대우, 평등, 민주주의, 참여, 개인의 자율성

(2)쾌락주의의 가치 : 향락, 모험, 긴장, 기분 전환, 정서적 욕구의 만족

(3)개인주의의 가치 : 창의성, 적극성, 자아 실현, 자유분방, 독자성

교과서 수록 작품의 경우, 자아 실현에 관계된 작품은 『소설 동의보감』, 『병어리 삼룡이』, 『홍길동전』, 『우산장수 할아버지』의 네 편으로 위의 분류 중 (1)과 (3)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자아 실현은 전통적 가치인 가문의 영광보다 앞서는 가치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특이성¹⁵¹⁾과 관계되는 것으로, 자아 실현은 고통을 감수하며 얼마간의 희생을 치르고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쾌락주의의 가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또한 자아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2. 다양한 인간 모습 제시 미흡

소설은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깊이 있게 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술로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소설 교육도 소설이 가진 이러한 의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의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

150) 볼프강 브레징카, 안정수, 엄호현 옮김, 『가치 불확실 시대의 교육』, 서문당, 1997, 178면.

151) 임희섭, 앞의 책, 73면.

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시기 학습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그 나뭇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지향가치는 편협하다 할 수 있다.

먼저 인간적 가치를 다루는데 있어 인간이 복합적인 존재라는 점이 간과된 듯하다. 인간이 자아 실현을 이루려는 이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점 못지 않게 본능적인 존재이며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은 중요하다. 앞에서 볼프강 브레징카가 제시한 자아 개발의 세 가지 가치 그룹 중에서 유독 쾌락주의의 가치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 자아 실현은 그 과정에서 기쁘고 보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순간 순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얼마간의 희생을 치르고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할 때 보람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핀 것처럼 관념의 체계가 행동의 체계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해서 인간이 평생 살면서 이루어질 행동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프강 브레징카의 분류를 다시 살펴보면, 그는 가치 변화의 몇 가지 외형들을 살펴는데 1. 노동과 직업 2. 결혼과 가정 3. 자기 규율 4. 종교 5. 공공심과 애국심의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물론 이것이 인간사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이 직업을 가져야 하고 직업을 가진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인생에서 더 많으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종교를 선택해야 하거나 또 가지고 있고, 특정 사회나 국가에 어김없이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이런 점은 간과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의 문제나 일상에서 번번히 접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민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사회의 구조가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생활의 구조가 변하게 되고 따라

서 인간의 생각도 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빠른 시일에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 고도화 사회로의 이행 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진전, 정보 통신의 발전, 서비스 사회로의 이동, 소비 미학의 출현, 시간 개념의 변모 등이 잇따르면서 종국적으로는 고도화, 다양화, 개성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 태도가 자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¹⁵²⁾ 교과서의 수록 작품이 인간의 생활에서 의의가 있는 가치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해 가는 가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미래의 가치에 대한 관심 부족

하인호¹⁵³⁾는 미래 사회를 후기 산업사회라 규정하고 트리스트(Trist)가 제시한 세 가지 측면의 변화할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세 가지 측면이란 문화적 가치 측면, 조직 철학적 측면, 사회생태학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이행하게 될 후기 산업사회가 지향하게 될 가치는 다음에 제시되는 표와 같다.

152) 정준, 『가치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모』,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39면.

153) 하인호, 『미래사회의 가치관과 교육』, 교음사, 1985, 134-161면.

	산업 사회	후기 산업 사회
문화적 가치 측면	1. 성취도 2. 자아통제 3. 독립성 4. 인내와 극기	1. 자아 실현 2. 자기 표현 3. 상호독립성 4. 기쁨 추구의 역량
조직 철학적 측면	1. 기계적 형태 2. 경쟁적 형태 3. 분리된 목적 4. 독립적으로 소유된 것으로서의 자원	1. 유기체적 형태 2. 협동적 관계 3. 연계된 목적 4. 사회의 것으로 간주된 자원
사회생태학적 측면	1. 위기에 대한 대응 2. 특수한 수단 3. 강요된 동의 4. 갈등의 내면화 5. 단기 기획 6. 구체화된 중앙집권 통제 7. 소규모 지방 단위 8. 표준화된 행정 9. 분리적 봉사	1. 위기의 예언 2. 종합적 수단 3. 참여적 요구 4. 갈등의 표면화 5. 장기 기획 6. 일반화된 중앙집권적 통제 7. 대규모 지방 단위 8. 창의적 행정 9. 상호보완적 봉사

<표 10> 트리스트(Trist)의 미래 사회의 지향 가치

우선 각 측면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자.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문화는 인간 생활의 핵심요소가 되는 인간 생활 중심의 문화를 의미한다. 즉 사회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개인들에 의하여 지지되는 문화적 가치관을 말한다. 조직 철학적 측면은 다양한 과업 및 환경과 함께 각 개인으로 구성되는 형식적 조직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생태학적 측면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대규모의 상호 조직적 및 상호 도시적 집단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세계로 이루어 질 것에 관한 측면이다. 조직적인 것과 구분되는 전략의 적절성은 후기 산업 사회 문화의 적응적 효과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중에서 문화적 가치 측면의 후기 산업 사회의 가치에 해당하는 자아 실

현, 자기 표현, 상호독립성, 기쁨 추구의 역량에 관한 문제는 앞에서 다루었다.

교육적 측면에서 미래의 가치관과 관련된 중요성은, 우리의 경우 후기 산업 사회를 향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더욱 부각된다.¹⁵⁴⁾ 그 이유는 사회의 구성원은 성숙한 산업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갈등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 변화와 지식 정보에 관련된 가치관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가치관 선택 능력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교육 활동 이상으로 중요하다.

하인호에 의하면, 특히나 우리 나라는 식민지 통치를 받은 경험에 있기에 산업 국가 중에서 가치관의 조정 문제에 있어서 시련을 겪고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경우 세 가지 측면에서 가치관의 갈등이 제기되는데 ① 식민지 이전의 전통적 가치관 ②식민주의적 가치관 ③새로 도입된 선진국의 성숙된 가치관이 그것이다.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야기되는 갈등 현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산업화의 성숙된 단계에서는 더욱 더 많은 갈등과 충격이 유발될 것이다. 성숙한 단계에서는 선진국에서 도입한 가치관에 대한 갈등, 그리고 현존의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과의 결합을 통한 공통 가치의 설정 문제에 있어서 많은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교육이 다루어야 할 가치관의 조정과 선택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국제화와 개방 체제화는 더욱 더 교육이 다루어야 할 가치관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과학·공학·기술과 인간 윤리의 심한 격차로 인해 교육 내용의 개혁과 질적 수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인간화의 문제가 크나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후기 산업 사회를 위하여 교육 정책이나 교육의 실제에서 다루어져야 할 가치관은 산업화·과학화·전문화·민주화·국제화·개방체제화·인간화 속에서 조정되어 최적의

154) 하인호, 위의 책, 180-183면.

것이 선택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 사회에서 후기 산업 사회로 전이되는 과정에서는 교육의 주변이나 교육 환경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가치관 문제는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가치관에 대한 관심은 교육에서 주목해야 하는데, 국어 교육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특히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준¹⁵⁵⁾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21세기 위원회가 일찍이 우리의 21세기 생활관을 전망한 몇 가지 특징을 들어 예시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1)생활 관심사의 변모 - 개성화 중시의 흐름, 자연주의로의 회귀현상, 정신문명의 재조명, 2)생활 관습의 부침 - 남녀의 결혼관 변화, 결혼관 자녀관의 변화 양상, 3)기업마케팅의 새로운 접근 -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살펴 본 트리스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기 산업 사회의 지향가치와 21세기 위원회가 제시한 우리의 미래의 생활관에 대한 관심이 교과서의 소설 작품에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듯한 감이 없지 않지만 교육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생각한다면 미래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일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155) 정준, 앞의 책, 166-173면.

VI. 결론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문학은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그것들은 평가의 위력이 기세를 떨치는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신에게 특히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살아가면서 문득 문득 새로워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그것 자체로만이 아니라 주제가 이면에 개입되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학 작품은 주제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내면화된다는 점이다.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관한 가치 지향적 행위로, 가치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유의미한 어떤 것을 말한다. 문학은 일반적으로 예술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지만, 다른 어느 예술보다도 가치 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그 이유는 문학의 매체가 본질적으로 가치와 무관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문학에는 작자의 철학과 사상, 작품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등 일정한 세계관과 인간형이 작품에 담기기 때문이다. 다른 어느 장르보다 인간의 삶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소설은 가치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르이다.

이런 전제 하에 개정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소설 작품의 주제와 주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과서의 소설 작품은 한마디로 ‘인간적 가치’라 요약할 수 있는 가치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이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여러 관점의 시각으로 작품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정신적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친 산업화와 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작품이 수록된 것은 학습자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설 교육의 의의인, 인간의 복합적인 면을 보여주는 가치 분류를 하고 있는 정범모와 클라크혼의 분류에 따라 교과서 소설 작품의 가치관을 살펴 본 결과, 인간관에서는 주체관이 우세하였고, 시간관에서는 현재 지향의 가치가, 인생관에서는 수양관의 가치가 우세하였다. 특이한 것은 사회관에서 특정주의가 보편주의보다 우세하기는 하지만 귀속주의보다 업적주의가 더 우세하다는 것이다. 또 종적 관계가 횡적 관계보다 더 우세하지만 개인주의 보다 더 우세하지는 않았다. 즉 현대적 가치관이라 할 만한 보편주의와 업적주의, 개인주의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 같은 지향 양상을 보일 것이라 생각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우리만의 기형적인 개인주의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특정주의를 잘 보여주는 가족주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상당히 약화되고 그 대신 개인주의가 크게 강화되었으나,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아직도 한국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동시에 현대 한국인들의 개인주의는 서구사회에서 발견되는 개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개인주의가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나의 인격과 권리에 못지 않게 존중하는 개인주의의 이상을 결여한 채로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보호하려는 이기적 개인주의로 왜곡된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지향을 보이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인간적 가치를 다루는 데 있어 그것이 인격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인간적 가치의 가장 궁극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자아 실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실제 행동의 체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학습자가 수용하기를 바라는 관념의 체계만을 중시하고 있고, 소설 교육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인간의 복합적인 모습을 심층적,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이 미래에 대한 대비인 것은 명확한데, 학습자가 곧 맞이할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의식이 담긴 작

품이 거의 없다는 점은 문제라 하겠다.

오늘날은 경제, 문화, 정치라는 미명으로 부조리한 지배와 독단 그리고 억압이 가려져 있다.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서 독립적이 되면 될수록, 세상이 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 자신이 적나라하고 신속한 형태의 폭력에 의존하는 권력의 확보와 지배권을 위한 경쟁에 빠져들었던 역사의 경험을 상기하면 이것은 더욱 명확해 진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를 거울삼아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해방하는 길일 것이다. 인간이 그렇게 가장 인간다워져야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것은 공생(共生)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자료

-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교육부, 『중학교 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교육부,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교육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교육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논문

- 강남희, 「국어교과서 소설작품의 주제와 가치관 연구-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1998.
- 구혜경, 「소설교육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고려대 석사, 1994.
- 김순병, 「고등학교 문학 교재 소설 단원의 플롯과 주제의 해석」, 부산대 석사, 1991.
- 김정해, 「초등 학교 문학 교재의 주제 연구」, 숙명여대 석사, 1993.
- 박경호, 「중학교 소설 교육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90.
- 박승만, 「정선 아라리에 나타난 가치관 연구」, 한국 교원대 석사, 2000.
- 박유정, 「소설 주제 지도 연구-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고전 소설을 중심으로」, 경상대 석사, 1993.
- 박홍선, 「소설교육의 목적과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1989.
- 손유진,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문학작품의 주제유형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91.
- 송인식,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통해서 본 미술교과」, 한국교원대 석사, 1994.

- 심상영, 「초등 학교 『읽기』교과서 이야기 단원의 주제 및 등장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1996.
- 오길주, 「권정생 동화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 1997.
- 이재훈, 「주제 분석을 통한 동화 교재의 연구-제 4,5,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주교대 석사, 2000.
- 임정중, 「초등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동화의 주제 변천 연구-중, 고학년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교대 석사, 2000.
- 정삼조, 「시 주제 지도 연구」, 경상대 석사, 1994.
- 주현숙,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가치관 분석 및 개선방안」, 전남대 석사, 1993.
- 채미영, 「아시아 전래동화와 유럽 전래동화에 나타난 가치관 연구」, 한국 교원대 석사, 1993.
- 최문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동화 교재의 주제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97.
- 최용선, 「문학 작품 수용에서 주제 내면화 방법 연구-읽기 교과서 동화를 중심으로」, 인천교대 석사, 2000.
- 허순연, 「식민지시대 단편소설의 주제연구」, 부산대 석사, 1989.

■ 단행본

- 견학필 외, 『사회와 가치』, 경성대 출판부, 1994.
- 고범서, 『가치관과 교육』, 나남, 1990.
- 공보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1996.
- 곽정식, 「<홍길동전>에서의 동일성의 문제」, 『한국고전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97.
- 구인환 외,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9.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 구인환, 구창환, 『문학개론』, 삼지원, 1995.
- 김광순, 『한국고소설사』, 국학자료원, 2001.
- 김동욱, 「<홍길동전>의 비교문학적 고찰」, 이상택, 성현경, 『한국고전소설연구』,

- 새문사, 1993.
- 김병욱, 「한국현대소설 작품론」, 이재선, 조동일, 『한국현대소설작품론』, 문장, 1981.
- 김상욱,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김성곤, 『뉴미디어시대의 문학』, 민음사, 1996.
- 김용성, 『문학교육방법론』, 이회, 2000.
- 김일렬 역주, 『홍길동전/전우치전/서화담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김일렬, 「홍길동전의 구조적 통일성」,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91.
- 김종희, 「순수성과 서정성의 문학, 또는 문학적 완전주의」, 『황순원 대표 소설선 소나기』, 청동거울, 2001.
- 김채수 편, 『소설의 주제 도출법』, 박이정, 1997.
- 김태길,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I』, 문음사, 1986.
-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문음사, 1982.
- 나도향, 『나도향전집』, 집문당, 1998.
- 류우선, 「〈홍길동전〉에 나타난 저항성 고찰」, 『한국 고소설의 전개』, 한국고소설 연구회, 1990.
-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편, 『문학교육의 탐구』, 국학자료원, 1996.
-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문학과 문학교육』, 국학자료원, 2000.
-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 박덕은 편, 『현대소설의 이론』, 박영사, 1988.
- 박덕은 편역, 『소설의 이론』, 새문사, 1986.
- 박동규, 『전후 한국소설의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6.
- 박배식, 「황순원 소설의 기독교적 구원의식」, 임영천, 『한국현대문학과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2000.
- 박헌호, 「나도향과 욕망의 문제」, 상허학회, 『1920년대 동인지 문학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
- 서익환, 「소심하고 내성적인 휴머니스트」, 『한국현대문학과 시대인식』, 새미, 1998.

- 신춘자, 『현대 소설의 이론』, 이회, 2000.
- 안동립 역, 『소설의 분석』, 현암사, 1985.
- 엄해영, 채명식, 『소설교육론』, 느티나무, 1995.
- 이강언, 「나도향 후기 작품론」, 국어국문학회 편, 『현대소설연구』, 정음사, 1982.
- 이남호, 「황순원 소설에서의 존재의 아름다움과 외로움」, 서종택, 정덕준, 『한국 현대소설 연구』, 새문사, 1990.
- 이문규, 『허균 산문문학 연구』, 삼지원, 1986.
- 이봉채, 『소설구조론』, 새문사, 1984.
- 이수용, 『중국 문학 개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하』, 창작과 비평사, 1990.
- 이재선, 신동욱, 『문학의 이론』, 학문사, 1984.
- 이재인, 「21세기를 향한 오영수 소설 연구의 가능성」, 임영천, 『한국현대문학과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2000.
- 이재인, 한용환, 우한용 편저, 『현대소설의 이해』, 문학과사상사, 1996.
- 이철지 엮음, 『오몰덩이처럼 뒹굴면서』, 종로서적, 1986.
-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정규복 외, 『한국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5.
- 임희섭, 『사회변동과 가치관』, 정음사, 1986.
- 장사선, 「오영수소설의 작품세계」, 서종택, 정덕준, 『한국 현대소설 연구』, 새문사, 1990.
-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1981.
- 정병헌, 이지영,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돌베개, 1998.
- 정준, 『가치관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모』,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 정하영, 「『심청전』의 주제고」, 이상택, 성현경 편, 『한국고소설연구』, 새문사, 1983.
-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7.
-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1』, 지식산업사, 2001.
- 조정래,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2.
- 천이두, 「황순원의 <소나기>」, 이재선, 조동일, 『한국현대소설작품론』, 문장, 1981.

- 최시한,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소설 단원 검토」,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 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태학사, 2000.
- 편집부, 『정통한국문학대계 작품해설집1,2』, 어문각, 1996.
- 하근찬, 『흰종이 수업』, 삼중당, 1977.
- 하인호, 『미래 사회의 가치관과 교육』, 교음사, 1985.
- 하정일, 「한국전쟁의 시공간성과 60년대 소설의 새로움」,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 2000.
- 한국고소설연구회, 『한국고소설의 조명』, 아시아문화사, 1990.
- 한국현대소설연구회,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5.
- 한만수, 「위인전과 ‘위인전’」, 『삶 속의 문학, 독자 속의 비평』, 나남출판, 1995.
- 한용환, 「주제론」, 『동국어문학』6, 1994.
- 한용환, 『소설의 세계』, 문학아카데미, 1993.
- 한점돌, 「총체적 식민지현실의 형상화 - 나도향론」, 김용성, 우한용, 『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2001.
- 한혜선, 『한국소설과 결손인물』, 국학자료원, 2001.
- 한희수, 『한국문학의 성과 권력구조』, 한국문화사, 2000.
- 로만 야콥슨 외, 조주관 역, 『러시아 현대 비평이론』, 민음사, 1993. 참조.
- 마르트로베르, 김치수·이윤옥 옮김,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 麻生磯次 외, 이영구 역, 『일본 문학 개론』, 교학연구사, 1981.
- 미셸뷔토르, 김치수 옮김, 『새로운 소설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96.
- 볼프강 브레징카, 안정수, 엄호현 옮김, 『가치 불확실 사회의 교육』, 서문당, 1997.
- M.H. 아브람스,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4.
- 월프레드 L. 게린 외, 최재석 옮김,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2000.
- 퍼어시라복크, 송욱 역, 『소설기법론』, 일조각, 1997.
- 헤르만헤세, 홍경호 옮김, 『나비』, 범우사, 1999.

■ 정기간행물, 기타

- 강인숙, 「인간 존재의 해명과 낙원의 상실」, 『한국단편문학』 15, 금성출판사, 1992.
- 권정생, 「참으로 순수한 문학인이 되기를」, 『아동문학평론』 49, 1988.
- 김명희, 「이준연 작품의 토속세계 연구」, 『전주대교육논총』 11, 1996.
- 김상욱, 「50년대 소설의 교육적 해석」, 『아주어문연구』 1, 1994.
- 김상욱, 「어린이 문학과 ‘자본의 어린이’」, 『당대비평』 16, 2001.
- 민궁기, 「〈홍길동전〉 주인공의 탄생에 관하여」, 한국고소설연구회, 『한국고소설의 재조명』, 아세아문화사, 1996.
- 민영대, 「‘홍길동전’의 주제연구」, 『국어국문학』 83, 국어국문학회, 1982.
- 박경수, 「소설의 주제 분석에 다른 가치관 교육의 문제」, 『정신문화연구』 34, 1988.
- 박남훈, 「대중-문학의 소비자 혹은 심판자」, 『문학정신』 70, 1992.
- 박일용,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 서경석, 「해방 50년 소설사의 주제사적 궤적」, 『동서문학』 218, 1995.
- 선주원, 「가치관교육으로서 소설교육의 목표」, 『한국어문교육』 10, 2001.
- 성현경,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 신범순, 「문학사 쓰기에서 <주제론>적 시각의 도전」, 『세계의 문학』 60, 1991.
- 윤병로, 「구인환 소설론」, 『신청어문』 23, 서울대 사범대, 1995.
- 이강엽, 「소설 교육에서의 주제 탐색 방법 시론-양반전을 실례로」, 『국어교육』 87·88, 1995.
- 이경희, 「동화의 주제 분석적 연구-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동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논지』, 대구교대, 1987.
- 이계삼, 「진리에 다가가는 영혼 - 권정생의 문학세계」, 『녹색평론』 56, 2001.
- 이병훈, 「소설 『동의보감』의 대중적 친화력, 그 근원과 한계」, 『고대문화』 36, 1992.
- 이재선, 『문학주제학의 시각』, 『한민족어문학』 35, 1999.
- 조남현, 「지향해야 할 얼굴없는 작가와 뉘두리」, 『동서문학』 170, 1988.

- 최지훈, 「동화작가 이준연론」, 『아동문학평론』 60, 1991.
- 최지훈, 「비통한 역사의 서정적 증언」, 『아동문학평론』 49, 1988.
- 최혜정, 「중학교 소설 단원 분석 및 평가」, 『어문교육논집』 15, 부산대 국어교육과, 1996.
- 한기상, 「국어 교육과 외국 문학의 수용」, 『국어교육연구』 1,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연구소, 1994.
- 한만수, 「9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 그 세계관과 오락성」, 『한국문학연구』 20, 동국대학교, 1998.
- 허왕욱,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영역에 대한 단상」, 『문학과 교육』 16, 문학과 교육 연구회, 2001.